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51호

Wednesday, March 12, 2025 A

암호화폐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 대결 본격화

SPECIAL STOR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추종하는 금융권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애초 미국을 전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연방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함과 동시에 법적 수익으로 몰수한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의도를 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음모론자들이 민주당을 부추겨 "대통령 일가가 행정명령 이전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투자했으며 심지어 시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의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정인사들이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 음모론 가짜뉴스 유행, 대통령 아들 캐피털 원 은행 소송 국가부채 갚고 중국 위안화 패권 정책 좌절시키려는 의도



을 미리 투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국증권위원회(SEC)를 동원해 대통령 일가가 개입한 시장 조작 의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음모론자들은 행정명령 이전에 고액을 배당해 큰 수익을 챙긴 백악관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와 차남 에릭이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와 관련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 암호화폐에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가짜뉴스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에 손을 댄 상태이며, 실령 사실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독자적인 경영 판단일 뿐이다.

금융권은 암호화폐를 적극 투자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될 경우 기존 통화 중심의 금융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일가를 향한 금융권의 직접적인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본사를 둔 캐피털 원 은행은 명확한 사유 없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은행 계좌 300개 이상을 폐쇄한 바 있다.

에릭 트럼프는 "캐피털 원 은행이 명확한 사유 없이 계좌를 폐쇄시켰는데,

이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대통령 가족 관련 계좌를 폐쇄한 진짜 이유는,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책에 반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팀 스콧(공화, SC) 연방상원의원은 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정보를 이유로 특정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콧 의원은 "금융권이 정치적 차별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중국의 달러화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모책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할까 두려워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옥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늦춰질 듯, 이틀 연속 선고 사례 없어

"헌재 내부 격론, 방어권 주장 힘 실린다" 주장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1995년 이후 헌재가 연이틀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 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해서였다.

하지만 전날인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잡히면서 헌재가 연이틀 주요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원론적 발언을 전제로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이틀 선고한 사례 한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선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윤 대통령 선고는 12일이나 14일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12월 14일)보다 접수는 13일 늦었지만 지난달 19일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이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 탄핵 사유 일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 스스로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차진 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과 윤 대통령 방어권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부에 격론이 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선고 후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8인 재판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이견이 잘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합치는 과정 또는 소수의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결정문에 넣는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 탄핵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2주간 집중 평의를 해온 만큼 이미 윤곽은 나왔을 것이고, 결정문을 다듬으며 적절한 선고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책임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관세로 신차값 꺾충 뚝다

소비자에 비용 전가 불가피 최대 1만2200불 인상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 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자동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은 구매를 서두를 것이 권고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가가 실행될 경우 자동차 가격 급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 분석 기관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가 시행되면 일부 자동차 모델의 가격이 낮게는 2000달러에서 최대 1만2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EG의 패트릭 앤더슨 최고경영자는 “비용 증가를 소비자가 모르게 숨길 수는 없다. 대부분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일부 모델은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관세 정책을 변경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오락가락’ 관세 탓에 현재 정확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되도록 빨리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관세가 4월에 발효된다 해도 그 지속



터스틴 오토몰에서 신차를 둘러보고 있는 쇼핑객.

박낙희 기자

기간이 불분명한 만큼, 되도록 가격 상승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로버트 핸드 필드 공급 매니지먼트 교수 또한 “자동차를 올해 안에 구매할 계획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며, “관세가 적용되기 전 차량을 구매하면 일반 세단 기준 4000달러, 트럭은 최대 1만~1만20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을 개별 모델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전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조정할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D파워의 타이슨 조미니 분석 담당 부사장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도 포함해 모든 차량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체 라인업에 걸쳐 비용을 분산

시켜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고가 충분한 업체는 당분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재고가 부족한 일부 브랜드는 더 빨리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미니는 “관세가 시행되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만약 몇 달 내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새 차 가격이 오르면 중고차 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싼 신차 가격이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차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조미니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워싱턴 BLM 플라자 문구 지우기 도로공사

워싱턴DC 다운타운의 BLM 플라자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문구가 칠해진 도로 정비 작업이 시작됐다.

워싱턴D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주

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를 파헤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재했다. 시정부는 도로 공사에 모두 6-8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VA 헌던 타운 재산세 인상 예고

버지니아 헌던 타운 정부가 현행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100달러 당 26센트에서 27센트로 인상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택소유주는 전년 대비 평균 133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식당음식세금도 음식가격의 3.75%에서 4%로 오른다.

헌던 타운 정부는 예산 압박으로 인해 2011년 이후 처음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헌던 타운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56만 939달러로 전년 대비 6.63% 상승했다. 헌던 타운은 바엔나, 클립튼 등과 함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준독립 행정구역이다.

워싱턴DC 벚꽃 개화 1단계 돌입

국립공원관리국(NPS)가 워싱턴DC 벚꽃 축제 장소인 타이틀 베이슨 지역의 요시노 벚나무 대부분에 꽃망울이 맺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벚꽃 개화 1단계다. 워싱턴 지역 벚꽃 절정시기는 예년에 비해 빠

른 3월23일-27일로 예측된다. 벚꽃 절정시기는 워싱턴DC 내셔널 몰의 요시노 벚꽃나무 개화율이 70%에 도달했을 때이다. 워싱턴DC 벚꽃축제는 3월20일부터 4월13일까지 열린다.

아이스하키 알렉스 오베치킨 최다 득점 신기록 눈앞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알렉스 오베치킨(워싱턴 캐피털스)이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통산 득점 1위를 앞두고 있다.

오베치킨은 현재 886골을 기록하고 있어, 전설적인 스타 웨인 그레츠키(61세)가 보유한 894골에 10골 뒤

쳐지고 있다. 오베치킨은 이미 결승골 135회 등 다수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레츠키는 1999년 은퇴하기 전까지 20시즌 동안 1487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1994년 3월23일 802골로 기존 기록을 갱신한 후 은퇴 전까지 92골을 더 넣었다.

페어팩스 카운티 초·중학교 등교시간 조정 예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중학교 시작시간을 오전 7시30분에서 다

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중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오전 8시-9

시40분으로 늦추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중학교 시작시간을 늦추면 초등학교 시작시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박동우 기자

미국·우크라이나 30일 휴전 동의

광물협정 체결 합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방안에 11일 전격 합의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 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대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인 제안에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날씨 (°F)

13일(목)	61~41	16일(일)	73~51
14일(금)	57~44	17일(월)	54~36
15일(토)	64~59	18일(화)	63~43

3월 12일(수) 67~3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가운1층 콘도 킹스팩 방1, 화1 \$1,600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방4, 화4 1/2, 차고2 \$4,100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방4, 화4 1/2, 차고2 \$3,900
--	--	--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스쿨버스 카메라 시행

5월12일부터 위반 벌금 250달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처음으로 스쿨버스 스탱사인 차단막 카메라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교육청은 스쿨버스 50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4월9일부터는 스쿨버스 스탱사인 차단막을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5월12일부터는 벌금 티켓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만약 적발될 경우 250달러 벌금 티켓이 발부되며 벌점이 부과된다.

카운티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뿐 벌금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운티 교육청은 카메라가 장착된 스쿨버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에서는 카메라 장착 스쿨버스를 더욱 늘려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찰스, 워싱턴, 프레드릭 카운티,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폴스 처치 시티 등이 스쿨버스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DC의 경우 1회 적발 벌금이 500달러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2023년부터 학교 주변과 도로공사 구간 등 모두 10여 곳에 스피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스피드 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 1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 등은 스피드 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DC, 메릴랜드로 오세요”

메릴랜드의 일부 정치인이 워싱턴DC를 다시 메릴랜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이미 라스킨(민주, MD) 연방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자치권을 회수하고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만들려한다”면서 “워싱턴DC가 이 악몽을 극복하고 메릴랜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내게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라스킨 의원은 농담조로 말한 것이지만, ‘언중유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래 워싱턴DC의 전신인 워싱턴 시티는 1790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연방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연방 정부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만들어졌다.

1800년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DC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도맥 강 서쪽 지역, 즉 알링턴 카운티 일부 지역은 1847년 버지니아 지역에 반환됐으나, 현재 워싱턴DC 대부분의 지역은 원래 메릴랜드 땅이었다.

메릴랜드는 워싱턴DC가 연방정부 직할령과 자치령으로 변한 이후

에도 줄곧 편입 법안을 추진해왔다. 워싱턴DC가 연방하원의회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익 등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DC는 메릴랜드 편입보다 주정부 승격을 원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워싱턴DC 주민의 80% 이상이 주정부 승격을 요구했다.

워싱턴DC 공식 웹사이트에는 우리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 대신 독립적인 주정부를 원한다고 써여 있다. 이같은 염원에도 공화당은 워싱턴DC 자치권 회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예산 10억달러 삭감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워싱턴DC가 메릴랜드의 한 시티 정부로 편입된다면, 메릴랜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DC 주민들은 연방정부 등 메릴랜드 정부 등 자신들을 식민지 취급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옥채 기자

연방정부 감축, 지역정부 실업급여 신청 늘어

2월 첫째주 이후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연방공무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45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직해임 상태인 행정직 중 인 공무원과 법원 소송에 의해 해고가 부여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 공무원 등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테리 클로워 조지메이슨 대학 지역분석학센터 소장은 최근 버지니아의 구인 광고가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

다. 민간기업 구인광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고 공무원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이지만, 구인광고는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2월 버지니아 구인광고 중 일반행정직은 32건에 불과하지만 IT 직종은 매우 많았다.

버지니아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30만 명 이상이며 이중 ⅓ 이상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이다. 주양 페레이라 버지니아 대학 웰던 쿠퍼 센터 교수는 “연방정부 고용으로 버지니아가 번영해 왔지만, 지금은 위기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말 버

지니아의 연방공무원은 모두 31만5천 명이었다. 클라워 소장은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전체 버지니아 일자리의 40%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웰던 쿠퍼 센터는 연방정부 감축정책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공무원 3만9천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지니아가 이 정도의 또다른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실업난을 불러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 40만명 중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조산아 학대한 간호사 구속 대퇴골-다발상 늑골 골절

버지니아 헨리코 카운티 경찰국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조산아를 학대한 혐의로 한 간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간호사 에린 스트로트먼은 지난 11월10일 헨리코 닥터스 병원 NICU에서 생후5

개월짜리 남자 아이의 다리에 압력을 가했다.

용의자는 또한 아기의 다리에 자신의 체중을 싣고 아이의 발이 머리에 닿을 때까지 밀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동영상에는 아이가 괴로워하는 표정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아이는 왼쪽 대퇴골 골절,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다발상 늑골 골절을 입었다.

당국에서는 11월 22일에 수사에 착수

하고 1월 2일 중상해 및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 및 기소했다.

병원 측은 제작년과 작년 다른 6명의 아기도 원인 불명의 골절현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내부 조사 결과 초기 4건의 사건에 용의자가 관련돼 있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이 병원의 정식 운영 면허를 중단하고 조건부 면허로 대처했다. 김윤미 기자



교협, 50년사 편찬 앞두고 회고의 시간 가져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 이하 교협)는 ‘50년사 편찬’을 앞두고, 지난 10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워싱턴 신학교에서 교협의 역사와 역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협이 워싱턴 동포 사회를 이끄는 모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협력 증진, 차세대 인재 육성,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당면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질문 - 오니에게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실내 골프 연습장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채틀리 GTR
•인도어 골프 •실내 연습장 •스크린 골프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GTR GOLF TRAINING REVOLUTION
703-817-2130 OPEN HOURS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채틀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펜스 설치 후 맥아더파크 범죄 ↓

3개월 전보다 범죄 57% 줄어

LA시가 지난 1월 맥아더파크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펜스를 설치한 이후 해당 지역의 폭력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펜스 설치와 함께 경찰 순찰을 강화한 결과, 펜스 설치일(1월 25일) 기준 3개월 전보다 맥아더파크 지역의 폭력 범죄가 57% 감소했다”며 “특히 강도와 가장 폭행이 각각 50%, 45%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LA시는 맥아더파크 지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해 펜스 설치에 이어 갱단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배치 확대, 공원 내 마약 및 무기 거래 차단 등의 노력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 범죄도 28%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짐 맥도널 LA경찰국(LAPD) 국장은 최근 맥아더파크 지역에서 35만 달러 규모의 소매 절도 피해 물품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소매 절도 조



캐런 베스(왼쪽) LA시장이 10일 맥아더파크 인근 램파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맥아더파크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펜스를 설치한 이후 폭력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직 네트워크를 발견해 이를 끊어냈고, 특정 장소를 수색해 절도품을 다량 발견했다”고 말했다. 해당 절도품들은 맥아더파크 지역 인근 CVS, 월그린, 타켓, TJ 맥스 등에서 도난당한 물품들이었으며 확인됐다.

맥아더파크 지역을 관할하는 유니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LA시의원은 지역 상인과 노점상들이 갱단의 협박 없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전임자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와 소통을 강화하는 전담반 두 팀을 꾸려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일례로 맥아더파크 평화대사(peace ambassador)가 지난 1월에만 주민 300명과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아더파크는 오랜 기간 유지보수가 부족했던 지역으로, LA시는 최근 2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삶과 추억

‘이철수 무죄 판결’ 끌어낸 참 언론인

이경원 대기자 별세

주류 언론에서 활약하며 한인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이경원(사진) 대기가 지난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96세.

고인은 지난 1928년 개성에서 출생했으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직후인 1950년 도미했다. 웨스트버지니아대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지난 1955년 일리노이대에서는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인은 같은 해 테네시주에 있는 킹스포트 타임스 앤 뉴스에 기자로 입사하면서 아시아계 이민자 최초의 주류 일간지 기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1970년 새크라멘토 유니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19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갱단 살인사건의 역



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중이던 이철수 씨 스토리를 처음 보도했다. 이후 그는 5년간 이철수씨 관련 기사 100편 이상을 작성하며 그의 재심과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기여했다.

고인은 지난 1979년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미국 최초의 한인 영어 신문인 ‘코리아타운 위클리’를 창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선 이씨와 딸 2명, 손자·손녀 6명이 있다.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경원리더십센터(소장 김도형)는 이날 중 LA에서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LA시 올림픽 개최 ‘먹구름’

LA시가 세수 부족에 직면하면서 2028년 LA올림픽 준비 작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회계감사관은 시정부가 심각한 재정 부족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세수입은 목표치에서 1억4000만 달러가 부족할 전망이다. 판매세 및 사업세(Sales and business taxes) 수입이 9200만 달러나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2025~2026 회계연도 세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회계감사관실은 연방정부의 관세 정책, 이민자 정책 등으로 새 회계연도 세입이 3억2000만 달러나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의 대형산불도 세수 부족의 요인으로 꼽힌다. 재난 피해 지역 상권이 사실상 무너져 관련 지방세 등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이밖에 LA시정부

가 받기로 된 보조금 등 일반기금 역시 7300만 달러로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LA시가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올림픽 개최 문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마련과 대중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LA올림픽은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의 개막식, 그리고 곳곳의 경기장에서 열린다. LA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4 파리올림픽처럼 상설경기장 신축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시 경기장 조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형산불의 복구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올림픽 준비작업과 경쟁을 벌이게 된 양상이다. 이로 인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건설자재 등 자원, 인력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형재 기자

리모델링 퇴거 사유 안돼

LA시에서는 당분간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됐다.

LA시의회는 오는 8월 1일까지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7일 승인했다. 조례안은 캐런 베스 LA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세입자의 강제퇴거 사유 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직 법원에서 퇴거판결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주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 전기 및 배관 공사, 기계적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8월 1일까지 리모델링 관련 강제퇴거 부작위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한인 정치력 현주소

전체 유권자 30만명 육박

민주당 지지율 공화당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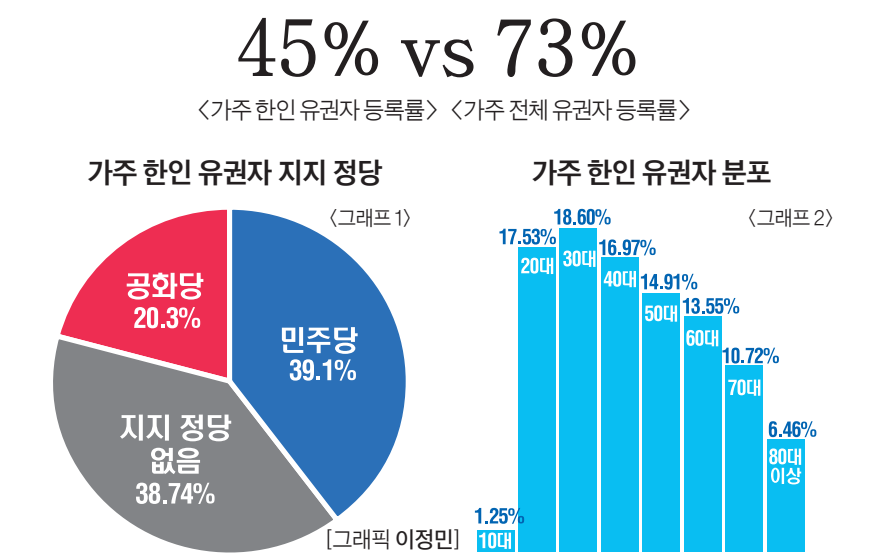
가주의 한인 유권자 수는 30여만 명에 달하지만, 유권자 등록 비율은 4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의 등록률 73%보다는 27%포인트 가량 낮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센서스국과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 가주 등 9개 주의 한인 유권자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주 내 한인 인구는 46만6313명이며 이중 유권자는 29만869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만5737명에 불과했다. 한인 유권자 수는 가주가 가장 많지만 유권자 등록 비율은 가장 높은 워싱턴주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가주 한인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39.1%, 공화당은 20.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경우도 38.74%나 됐다. <그래프 1 참조>

연령대는 30대가 18.6%로 가장 많았고 20대(17.53%), 40대(16.97%)순으로 집계됐다. <그래프 2 참조>

가주에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LA 카운티(9만287명)였다. 이어 오렌지카운티(3만4465명)와 샌타클



라카운티(1만 5021명), 알라메다카운티(1만1257명), 샌디에이고카운티(9077명)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LA(3만964명), 샌프란시스코(8726명), 샌호세(6390명), 어바인(6318명), 샌디에이고(5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 지역구로 보면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가주 34지구(5만9101명·현 민주당 지미 고메즈 의원)에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구는 LA 한인타운 외에 차이나타운, 보일하이츠, 리틀도쿄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가주 39지구로 총 4만7654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리버사이드, 모레노밸리 등이 포함되며 현재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이 연방 하원의원직을

맡고 있다. 3위는 베트남계 미국인 데릭 트랜 연방 하원의 45지구(2만 9854명)였다. 영 김 하원의원의 지역구인 40지구의 경우, 한인 유권자(2999명)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다음으로는 뉴욕(9만224명), 뉴저지(6만6251명), 버지니아(5만2165명), 텍사스(4만5840명), 워싱턴(4만5239명) 주순으로 한인 유권자가 많았다.

KAGC는 이들 5개 주의 한인 유권자 등록률도 공개했다. 뉴욕주의 등록 비율은 34.56%로 가주보다 더 낮았다. 이에 반해 워싱턴(65.86%)과 뉴저지(65%)주는 65% 이상을 기록했고, 앨라배마(58.52%), 텍사스(58.52%)주도 58%가 넘었다. 김영남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주 차원 종교 관련 입법 증가

앨라배마와 텍사스, 조지아주 등에서 종교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앨라배마주 하원 교육정책 위원회는 지난 5일 과외 종교 교육(RTRI·Released Time Religious Instruction)을 수업을 학교 밖에서 들을 경우 선택 과목 학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 HB342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텍사스주 상원 표결에 들어가는 등 종교적 법안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법안을 발의한 수전 듀보스 하원의원은 종교의 자유 보호가 취지라고 밝히고 종교 수업의 성격에 대해 주립학교 수업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수업을 빠지는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교육위원회가 지침을 만들면 지역 교육위원회는 종교 교육에 선택 과목 학점을 부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앨라배마 주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종교교육 수업 학점 인정 앨라배마주서 법안 검토 수업 중에 기도 시간 제공 텍사스 상원 전체 표결로

는 공화당 소속 에드 셋즐러 상원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이 연방과 주, 로컬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종교적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셋즐러 의원은 상원 토론에서 법안이 특정 그룹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로컬 정부 조례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상원의 표결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반대를 연방법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안이 수십 년간 계속된 도덕적 쇠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류 언론들은 상원 표결이 가능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들었다. 2019년 워싱턴주 브레머턴 고등학교의 조셉 케네디 풋볼 코치가 경기 후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기도를 인도했다가 해고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은 케네디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법안 청문회에는 조셉 케네디와 매트 크라우스 변호사가 참석해 찬성 의견을 냈다.

종교 학자와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초기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 기독교를 더 많이 도입하면 비기독교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에 부합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앨레나 페어런트 상원의원은 “이런 법안들은 우리 주에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 기업 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파적으로 찬반이 나뉘는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법안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4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기도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전체 표결로 넘겼다. 법안을 주도한 메이즈 미들턴 상원 의원은 “학교는 신이 없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들턴 의원은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진 이후 미국은 내리막

앨라배마 교육위원회 협회(AASB) 관계자는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종교 교육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듀보스 의원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의 여러 학교가 이미 이 정책을 채택해 오는 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비영리단체 ‘라이프와이즈 미니스트리(LifeWise Ministries)’의 커리큘럼을 사례로 들었다. 이 단체의 커리큘럼은 성경 수업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절했으며 26개 주에서 4만 2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AASB 측은 학업의 엄격성이나 다른 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종교적 신념과 충돌 법률 제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4일 종교적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SB36이 상원에서 32대 23으로 통과됐다. ‘조지아 종교 자유 회복법’인 SB36은 조지아주에서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법률의 시행이나 제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

농심, 에드워드 리 셰프와 콜라보 신라면 톰바 특별 메뉴 선보인다

글로벌 식품 기업 농심이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와 손잡고 신라면 톰바 홍보에 나섰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신라면 톰바를 활용한 요리하고 있다. [농심 제공]

농심 아메리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심과 에드워드 리 셰프가 협업해 신라면 톰바를 활용한 한정판 메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우승자이자 퓨전 아시아 요리 장인으로 유명한 리 셰프는 넷플릭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캔터키주 루이빌의 NAMI 레스토랑은 현대적 한국 요리와 미 남부 스타일을 결합한 독창적인 메뉴로 찬사를 받고 있다.

리 셰프는 오는 17일부터 NAMI 레스토랑에서 신라면 톰바의 매운 맛을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재해석해 3개월 동안 매달 새로운 메뉴로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메뉴는 ‘쉬림 프 스카피 톰바’다. 마늘 새우를 주 재료로 크림 치즈 톰바 소스, 헤비 크림, 체더 치즈, 파르메산 치즈가 어우러져 깊은 감칠맛을 완성했다. 또한 쫄깃한 면발과 부드러운 마늘 새우가 크림이한 소스와 조화를 이루며, 갯잎을 곁들여 신선한 풍미를 더했다. 강렬한 매운맛과 부드러운

운 크림소스가 어우러진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리 셰프는 “신라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신라면 톰바는 기존 신라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나만의 방식으로 이 제품을 다시 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신라면 톰바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출시된 이후 4개월 만에 25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면 특유의 매운맛에 치즈와 생크림을 더해 꾸덕한 식감이 일품인 신라면 톰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세대별 호응을 얻고 있다. 박낙희 기자

빈집 털이용 카메라 또 발견

남가주에서 주택 주변에 설치된 빈집털이용 몰래카메라(사진)가 연이어 발견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을 방문하러 갔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근처에서 또 다른 장치도 나왔다”고 밝혔다.



KTLA는 엔시노 지역 한 주택 앞 나무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빈집털이 절도범들이 집주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로 보인다.

LAPD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집 주변 조명을 밝게 하고 ▶앞마당이나 집 근처 나무와 수풀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보안 카메라 설치해서 집 주변을 감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

해당 주택 소유주의 자녀는 “부모님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물)
웨일리노레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M7 시총 하루새 7740억불 증발... “경기침체 30→40%”

(Magnificent 7·빅테크 기업 7곳)

테슬라-15% 엔비디아-5% 등 급락
아시아도 약세, 코스피 1.28% 하락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하면서 세계 자산시장이 비명을 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만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미국 예외주의’도 흔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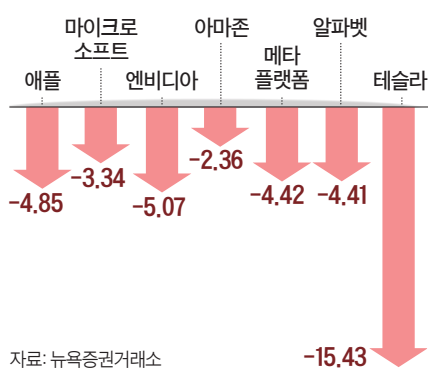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 하락한 1만7468.33을 기록했다. 2022년 9월 13일(-5.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다우존스 30·S&P500 지수도 각각 2.08%·2.7% 떨어졌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MS·엔비디아·애플 등 7개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7(M7)’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7740억 달러(약 1125조원) 감소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가 15.4% 급락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률

단위: % (전 거래일 대비), 3월 10일(현지시간) 증가 기준



자료: 뉴욕증권거래소

분을 모조리 반납했다.

블룸버그는 자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10일 기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베르나르 아르노 LVMH그룹 회장 등 5명의 재산 총합이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때와 비교해 2090억 달러(약 304조원) 줄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취임식에 귀



10일 시애틀의 한 주차장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AP-연합뉴스]

빈으로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이날 한때 7만66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일 한국의 코스피가 32.79(1.28%) 하락한 2547.6에 마감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였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 후폭풍이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은 크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다”고 답했다. 관세 정책 등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해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미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15%에서 20%로 올리면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대폭 하향했다. 미 재무부 장

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SNS를 통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다고 봤는데 지금은 50대 50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완전히 역효과를 내는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 여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지표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조정 여부에 따라 자산시장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대국을 협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실제 적용하는 세율은 그보다 낮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말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인 만큼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는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엔화값 1000원 코앞... ‘수퍼엔저 시대’ 막 내리나

(100엔당)

100엔당 995원, 22개월 만에 최저

11일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100엔당 1000원 선을 위협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00엔당 원화 가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연초(941.34원)보다 5.7% 급락(환율은 상승)한 995원을 기록했다. 2023년 4월 26일(1000.98원) 이후

22개월여 만에 가장 낮았다. 원화값이 100엔당 855원까지 급등해 일본 여행이 몰렸던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수퍼 엔저(엔화 가치 하락) 시대’는 사실상 상막을 내리고 있다.

이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와 일본 엔 등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연초 4.7%대에서 이날 10일(현지시간) 4.2% 선까지 밀렸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국채로 몰리면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채권 금리는 하락). 이들은 엔화 강세에도 베행하면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10일(현지시간) 장중 1달러당 146.63

엔까지 치솟았다. 다섯 달 만에 가장 높았다.

원화 가치가 단숨에 100엔당 990원대로 급락(환율 상승)한 것도 미국 달러 대비 엔화 절상 폭이 원화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일본은행(BOJ)이 상반기 중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엔화 가치 오름세를 부추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에 원화가치는 100엔당 1000원 선도 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3.8까지 떨어졌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5.6% 하락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확정됐던 지난해 11월 6일 이후 가장 낮다.

염지현 기자

트럼프·시진핑, 6월 생일회담 열릴까

WSJ “미국서 회담 개최 논의 시작”
양국, 정상회담 장소 놓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과 중화권 매체에서 잇달아 나왔다. 다만 시기와 장소 등 물밑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감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6월 미국에서 ‘생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생이고 시 주석은 1953년 6월 15일생이다. 두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면 트럼프 2기 이후 첫 만남이 된다.

WSJ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백악관과 주미 중국대사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추진설 사실 여부를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초 다시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며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일부터 1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희귀광물 수출 통제에 착수하는 등 보복 조치로 맞물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WSJ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타진되는 것은 양측이 관계를 호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화권에선 ‘4월 회담설’이 흘러나와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르면 다음달 초 방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중국을 방문한다면 특히 시 주석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회담 장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서로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선호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겪은 ‘수모’를 목격한 중국이 시진핑의 방미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는 “트럼프가 2017년 두 정상이 처음 만났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워싱턴에서 더 격식을 갖춘 만남을 갖거나 트럼프의 방중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간 ‘관세 전쟁’으로 악화된 무역·통상 이슈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만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등 국제 외교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시진핑 간 공식 정상회담은 모두 네 차례 있었다. 2017년 4월 시진핑이 마라라고를 방문해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트럼프가 답방 형태로 같은 해 11월 베이징을 국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듬해 ‘미국의 대중 관세→중국의 대미 보복관세’가 이어지는 등 무역 전쟁이 격화됐다. 두 정상은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갈등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백성호 CPA, MBA



백성호 공인회계사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민주당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의원(왼쪽부터)이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1일 현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삭발하는 모습을 국민의힘 김민전·윤상현 의원 등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로 나간 야당

윤 탄핵선고 임박, 여야는 지금

각자에 맡긴 여당

장외투쟁 총공세, 현재 윤 탄핵인용 압박 광화문에 천막치고 현재주변 릴레이 집회 여권 “국회 비운 원내 1당, 무책임한 처사”

재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상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도 90일이 다 되어 간다. 계엄군의 총칼에 헌정이 깃뚫힌 내란의 밤을 똑똑히 지켜본 우리 국민은 하루가 1년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방위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농성 본거지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날 옮겼다. 경북구역 인근에 당 천막을 치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무대를 세운 뒤 상임위별로 순번을 정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매일 밤 9시~10시 30분에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가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내란 세력의 총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천막 농성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서울광장 농성 이후 11년 만이다. 170석 민주당이 ‘야성(野性)’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분1초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때”(중진 의원)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야권에는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헌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했다. 전 의원은 삭발 후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낸다. 국민의 불안함을 막아준다면 제 몸을 던져서라도 얼마나 절절하게(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박법계·서영교·정청래 등 민주당 4선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선고 기일을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지도부 “우린 야당처럼 장외투쟁 안해” ‘개인자격’ 시위 참여 길은 열어둬 의원 40여명 현재 앞 릴레이 시위 동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일단 당 차원의 ‘맞붙은 농지’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다(현재로는) 각종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이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는 ‘현재가 절차적 흠결을 안고 있는 만큼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맞붙 집회를 하면 집권여당의 안정감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현재를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맞부딪쳤다.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현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다만 당 차원의 장외 투쟁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용인하기로 했다. 당장 윤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이날 오후 현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3일부터는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참한다. 현재 앞에는 지난 4일부터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다. 10~11일엔 일부 청년의 삭발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 석방 당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김기현 의원은 12일 한국NGO연합과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NGO연합은 지난 총선 때 사랑제일교회 전광환 목사의 자유통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단체다.

현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내 친윤계와 윤 대통령 측은 ‘아스팔트 우파’에 기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10일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며 가장 먼저 한 말이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김민욱·이창훈 기자

윤 “탄핵심판 전까지 조용히 지낼 것” ... 대통령실 “관저정치 안한다”

“윤, 정책현안엔 아무 질문도 안해” 정진석 실장 “참모들 차분히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나흘째를 맞은 11일까지 건강검진을 위한 외출(9일)을 제외하고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9일 저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같은 날 대통령실 참모 15명과 대규모 오찬을 하는 등 본격적인 ‘관저 정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에서 복귀한 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도 “궁금할 법도 할 텐데,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변호인단과 일부 참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주변에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조용히 지낼 것”이라며 향후 행보를 절

제할 것이라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 대통령실이 전한 “겸허하고 차분히 현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란 입장문도 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외부 인사들이 관저를 찾은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간단한 오찬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논란과 관련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데는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현

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수석급 참모진은 물론 실무진 행정관들에게도 “자칫 오해를 살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조선 의원은 “지금은 야당의 국정 마비와 출탄핵이 부각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정 시한(15일)까지 최대한 고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정부가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에 대해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과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1석5조 통합보험

5 in 1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Alliant, Athene, Alliant,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LSJ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HANS WORLDWIDE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NEW!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3월29일(토) \$179 선착순30명!
VIP 버스로 즐기는 뉴욕
+NY허드슨 린치크루즈!
 대형버스렌트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5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3/19(수)-3/29(토)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11일	마감
3/25(화)-4/6(월) 일본 12박13일	마감
4/9(수)-4/18(금)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남만의 동유럽 9박10일	마감임박 \$3,490 세라 정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마감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4/29(화)-5/9(금) 서유럽3개국 10박11일	마감
5/4(일)-5/16(금) 마감임박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마	마감
6/3(화)-6/15(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코카서스3국 12박13일	\$4,390 조앤 한
6/10(화)-6/19(목) 마감임박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5,095 재키 조
7/1(화)-7/14(월) 마감임박	
북유럽+발틱 13박14일	\$6,595 조앤 한
7/12(토)-7/26(토)	
백두산+서울시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5,990 NEW
7/12(토)-7/15(화)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럭스 3박4일	\$799 NEW
(연길-도문-이도백하-백두산(서파, 북파), 용정)	재키 조
7/17(목)-7/25(금)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4,500 NEW
(북해도-삿포로, 니세코, 도야, 후라노)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추천 항공포함 \$2,190 애나 김
8/1(금)-8/15(금) 마감임박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조앤 한
8/1(금)-8/13(수)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아프리카	마감임박 12박13일 \$12,900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란드 12박13일	\$12,900
8/4(월)-8/17(일)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란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추천	
알래스카 6박7일	추천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9/8(월)-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9/8(월)-9/17(수)	조앤 한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20(토)-9/28(금)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재키 조
9/30(화)-10/13(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이태리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테 13박14일	\$4,890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애나 김
동유럽 7박8일	\$2,890
10/6(월)-10/13(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이태리	
크로아티아, 돌로미테 7박8일	\$2,990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1,495 인솔자
보스톤-세인트 존스(뉴브런스윅)-시드니(노바스코샤)-할리팩스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6,495 재키 조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11/6(목)-11/18(화)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재키 조
11/11(화)-11/20(목) 카이로, 캄페시,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데이빗 한
11/26(수)-11/30(일)	
멕시코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세라정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12/6(토)-12/20(토)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6,590 재키 조
12/8(월)-12/20(토)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봄바람 휘날리며~
DC 벚꽃투어 당일투어 \$45
 3/29(토), 4/2(수)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9박10일 10/9(목)-10/18(토)
오션뷰 \$1,495 볼티모어 출발
가을 단풍 크루즈
캐나다 & 뉴잉글랜드
 보스톤(뉴잉글랜드)-세인트존(뉴브런스윅)-시드니(노바스코샤)-할리팩스
 한스가이드 동행/보스톤 시티투어 포함

엘리버드세일
\$50 off
 3/31까지 예약시

고국의맛! 프리미엄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전일정 5성급 딜럭스호텔
 ★제주도 최고호텔 신라호텔★
 -맛있는 고국의 토속음식

1차 4/22(화)-5/2(금)
 2차 10/15(수)-10/25(토)
편안한 최신 28인승 VIP 리무진버스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항공 불포함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 항공 불포함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24,4/14 출발가능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3/31마감, 4/7출발가능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4/21 출발가능 \$1,350

서부4대개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5박6일 \$1,300 항공 불포함 2명이상 출발가능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대생 복귀’ 호소한 교수들에 “위선”이라는 전공의 대표

현장에서
‘0명 선발’ 의협보다 더 강경 입장
‘대안보다 갈등 조정’ 비판 나와
의료계 단독방서도 “부적절” 반발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을 맡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연달아 올린 페이스북 글이다. 7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선언에 대한 일종의 답장이다. 제목처럼, 그의 답은 ‘NO’였다.

전공의 대표의 거부 반응은 “내년 0명 선발” 등을 만지작거리는 의협보다 한술 더 췌다. 특히 의·정 갈등 맞은편에 선 정부보다 정부 옆에 선 ‘스승·어른’ 의대 교수에게 감정의 날을 잔뜩 세웠다.

의대 학생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3058명 복귀’를 발표한 데 대해선 “학장이라는 자가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뿐”이라고도 했다.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공의 발언 듣는 김택우·박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정원 동결 등 의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가 도와달라는 이종태 한국외국어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인터뷰를 인용한 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후배들 건들지 말라며 앞장서도 모자란 판에, 처단하겠다는 자를 믿고 굴종하라 한다”면서 “정작 학생들 겁박하는 건 당신들(학장)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사직 전공의 입장에선 정부의 뒤늦은 ‘회군(回軍)’ 선언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 2000명 증원하겠다는 조

건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안 돌아오면 증원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일종의 협박이 됐는데 학생들이 돌아오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차선택’이라도 끌어내려던 의대 교수를 짜잡아 공격하는 순간, 의·정 갈등은 휘발되고 내부 갈등만 남았다. 의료계 단체 카카오톱방 등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의협 부회장 표현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결과에 가까워졌다. 휴학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도 이런 잡음에 묻혔다.

그런데도 화살은 안으로만 향한다. 박 위원장은 11일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교수들이)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썩소라도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한다”며 “의료계 부조리를 조장하고 방조해온 건 교수들인데, (지금껏) 뭘 했나”라고 했다.

반면에 정부 발표에 맞설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대생 교육 문제가 우선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같은 문제도 다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정도다. “학생들 인생이 달린 문제”(이종태 이사장)라면서 ▶내년 정원 동결 ▶2027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구성한 추계위에서 결정 ▶의학교육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을 끌어낸 교수들보다 구체적 건 없다.

의료계 내에선 박 위원장의 강경 행보를 격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이가 많다.

전면에 나선 그의 한마디가 전공의·의대생, 더 나아가 의협의 전체 여론처럼 ‘과대 대표’된 지 오래라 하다. 합리적 의견이 사라지는 부작용만 남았다.

익명을 요청한 복학 의대생은 “의료 시스템이 박단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가 많이 되나”며 한숨을 쉬었다.

‘골든타임’은 이제 3주 안팎. 이대로면 박 위원장의 ‘비토’대로 흘러갈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 필수의료과 의대 교수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내부를 설득하면서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데, 김택우 회장은 보이지 않고 박 위원장 말에 흔들리는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정종훈 기자

세 자녀 이상 가구, 6월부터 공항 ‘패스트트랙’

**저출산위, 출국때 우선 서비스
공공임대 선정 때 다자녀 우대
결혼 스텝에 가격도 공개하기로**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라면 앞으로 공항과 호텔에서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때 출생·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아빠와 자녀 한 명, 총 2명이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해 각종 수속에 걸리는 시간

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저출산위 측은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통 객실당 최대 4인까지만 묵을 수 있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컸던 다자녀 가구를 위해 투숙 인원 기준도 완화한다. 호텔업계와 논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 인원 선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이 추진된다.

결혼 서비스 가격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튜디오(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해 올 5월부터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

책도 보장해 나간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주거 대책도 강화한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 현재는 입주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순위자 간 경쟁이 있을 때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등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를 비교하고 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부여되는 점수를 각 1점씩 올리기로 했다. 결혼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한다.

세종=김연주 기자

“학교당 수십억 쏟아부었지만... 의대생 위해 증원 뒤엎어”

의총협 공동회장 이해우 총장 호소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이해우(사진) 동아대 총장은 11일 중앙일보에 “증원을 원상복구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학생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수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의총협 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합의를 이끌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대생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3월 말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 등 불이익 조치는 물론이고 정원 증원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다.”

—자녀처럼 대학이 자율 감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나.
“미복귀 시 내년도 모집인원은 5058명”이란 점도 총장들의 합의 사항이다. 설사 자율로 정원을 정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증원 쪽으로 의견이 기울 것이다.”

—총장 사이 이견은 없었나.
“일부 반대가 있었다. 이미 증원에 맞춰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 해도 80억원가량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됐다. 그럼에도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 유급이 예상되는) 3월 말이 학생 복귀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결단을 내린 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25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학교에서 교원을 공유하는 등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학생이 돌아오지 않아 3개 학년이 함께 교육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종훈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전약은 한곳에서

2024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 Day PENDING

\$1.2 M

Com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UNDER CONTRACT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페어팩스 타운홈

RENT

\$3,600

방4, 화3.5,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Very Good 컨디션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Annandale 싱글홈 \$890,000
**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 ... 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집에만 있는 비율 2년새 2.4→5.2%
우울증·자살충동 경험률도 늘어
전문가 "국가적 대책 필요한 수준"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만 19~34세)의 비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는 고달픈 삶을 사는 한국 청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국무조정실

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세대원이 있는 1만 5098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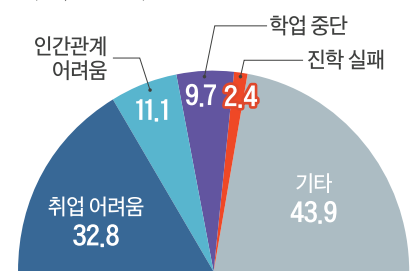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면접에 응한 청년들은 고립을 택한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등을 꼽았다. 면접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한 청년의 비

청년들, 고립·은둔 시작 이유

단위: %, 2024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율(6.1%→8.8%)과 자살 생각을 경험한 청년(2.4%→2.9%)도 늘어났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가 침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

가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부동산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말로 최대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 현실도 드러났다.

청년의 개인 연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이었는데,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주택 관련 부채(1166만원)였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선 소득 갈등(75.7%), 세대 갈등(72.1%), 성별 갈등(66.6%), 지역 갈등(62.4%) 순으로 청년층이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95.9%)와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결혼(74.4%), 출산·양육(69%) 순이었다. 결혼 계획 의향은 63.1%, 자녀 출산 의향은 59.3%로 2년 전(각 75.3%, 63.3%)과 대비해 각각 줄어들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와 데이터는 통계청의 품질 점검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보물이 '장물' ... 사상 첫 지정 취소

조선 형법 근간된 고서 '대명률'

도난당한 장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14세기 목판본 고서 '대명률(大明律)'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지정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가유산청은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도난당한 장물로 드러나 9년 만에 보물 지정이 취소되는 '대명률(大明律)'. [사진 국가유산청]

도 이 같은 가치가 인정됐다.

하지만 지정 4개월 만인 그해 11월 '대명률'은 경찰의 문화재 특별단속 과정에서 장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B씨에게서 1500만원을 주고 '대명률'을 샀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보물 지정 후에도 약속을 지키

지 않자 B씨는 '대명률'이 장물임을 폭로했다. A씨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보물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일부 국보·보물이 위작으로 드러나면서 '지정 해제'된 것과는 다르게 적용했다.

'대명률'은 문화 류씨 집안이 1878년 경북 경주에 세운 서당 육신당에 보관돼 왔다. 육신당 측은 1998년 '대명률'을 포함한 총 235점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이어 2011년 국가유산청에도 도난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도난당한 '대명률'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대명률'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강혜란 기자

반도체법 막히자 ...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

(1회 최대 인가)

고용노동부는 11일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R&D)을 사유로 하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3개월마다 반복해야 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

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쓸 수 있는 기간(1년)은 바뀌지 않지만, 한번 승인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상황에 따라 '6개월+6개월' 또는 '6개월+3개월+3개월' 등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다. 고용부 측은 "이 외에도 인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가 과정 간소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주 기자



수도권 삼킨 미세먼지, 오늘은 황사 영향권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부근이 뿌옇게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12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대기 질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목	주소	가격	상태
1610 Westmonte Rd, McLean, VA	COMING SOON	\$1,999,900	NEW
16309 Sandy Bottom Dr, Woodbridge, VA	COMING SOON	\$970,000	NEW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ALE	\$495,000	
1474 Hampton Falls Rd, McLean, VA	UNDER CONTRACT	\$1.25M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OLD	\$1.2M	SELL
10** Salt Meadow, McLean, VA	SOLD	\$2.73M	BUY

주소	기간	세입자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덜 좋은 조건이지만, 주인이 에이전트와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신청자 불고 독립, 주인 및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로리 손님 뽑고 싶고 할 당시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 주재원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번째 신청자지만, 오랜 노하우로 독립,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영상으로 보유하고 계약 완료, 국제구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원
2956 Paddock Wood Ct, Oakton, VA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원
2017 Meadow Springs Dr, Vienna, VA	2+1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원
919 Jaysmith St, Great Falls, VA	2+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원
McLean, VA	3년	집 내부 보지 않고 구입, 공실임이 바로 렌트, 구입/렌트 모두 에이전트 로리만 믿고, 렌트 투자용 집 사고 싶은 분 연방법, 주재원이 좋아할 만한 집 구입 후 바로 장기렌트 현물 자산 있음



그 외 30여세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홈플러스 믿고 입점했는데” ...정산금 못 받은 점주들 날벼락

홈플러스 입점 업체만 8000곳
적금 깨고 비상금 털어 겨우 매꾸

“마진요? 제 인건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장사를 더 해보려고 알아본 중이었는데, 이 난리가 나는 통에 다 멈췄어요.”

지난 10일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만난 음식점 사장 A씨는 직원 6명의 2월 급여를 주기 위해 적금 통장을 털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그는 1~2월 두 달치 매출 정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금 체불 상황에 몰리자 그는 아끼고 아껴 악착같이 모아뒀던 비상금을 끌어다 직원들 월급을 줬다.

A씨는 “저는 그나마 급한 불은 끄는데 여윌돈이 전혀 없는 점주들은 현금 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있다”며 “식당들은 그날그날 식자재비 낼 자금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그는 못 받은 정산금이 들어올 날짜를 이레나저레나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엔 ‘2월 매출의 일부(12~28일치)만 이번 주중에 정산해 준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11일엔 다시 ‘1월 매출은 12일에, 2월 매출은 31일에 각각 입금된다’는 소식을 받았다. A씨는 “테너트(점포 임차인)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들은 거라, 실제 돈이 들어와야 안심할 것 같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대형마트를 믿고 입점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 본사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금 지급을 공언했지만, 상당수는 두 달치 매출에 대한 정산금을 못 받고 있다. 당장 생활비, 인건비, 식자재비로 쓸 자금이 막히자 이들은 급히 현금을 조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전국 126개 홈플러스 지점에 입점한 업체는 8000여 개다.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점포도 있지만, 상당수는 식당, 카페, 약국, 안경점, 미용실, 꽃집 등 개인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의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단말기로 받은 결제 대금을 일단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익월 30일에 정산받는 입점 계약이 대부분이다. 지난 2월의 경우 30일이 없어, 3월 첫 영

업일인 지난 4일에 1월 매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정산일이 익월 10일(최대 40일)인데 비해 홈플러스는 20일 더 걸려 정산까지 최장 60일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게 순연되면서 줄줄이 문제가 생겼다. 장기간 불황으로 폐점 소문이 돌던 지점에 입점한 가게들은 분위기가 특히 안 좋다. 어린이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 B씨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우리 지점이 매각될 거란 소문이 돌기 시작한 뒤 공실이 계속 늘었는데 얼마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돈을 못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허탈해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입점 음식점에서 일하는 50대 직원은 “사장님에게 카드값이 급하다고 말해 일단 월급의

60%만 받았다”며 “우리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거래 채권은 발생 시기에 따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나뉜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공익채권은 법원 허가가 필요 없어 홈플러스가 지난 6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1월 1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다. 법원의 변제 허가가 필요한데, 홈플러스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변제 채권 규모는 4584억원이다. 11일 현재 이 중 약 1000억원만 지급됐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변제 승인을 신청할 채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지점·업종마다 정산 규모와 날짜, 안내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홈플러스 본사가 일부 점주들에게 1월분 정산금을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제한되는 차등 지급”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공식 입장이 아닌 구두를 통해 정산 계획을 알려오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14일까지 상세 지급 계획을 전달해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금 지급이 지연돼 협력사가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 받으면 그이자 비용도 지급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가게’를 꿈꾸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대형마트는 백화점·공항 등과 함

께 특수상권으로 꼽힌다. 자영업자가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홍보하지 않아도 대형 유통 플랫폼의 프로모션으로 비교적 쉽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매출도 안정적인 편이라서다. 입점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액의 20% 안팎을 수수료로 낸다. 하지만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자구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자 입점 소상공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C씨는 “온라인 시대라지만 디지털 광고를 잘할 자신도 없고 해서 대형마트에 입점했는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할인행사인 ‘홈플러스’를 연장해 현금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영승(경영학부 교수)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대기업인 납품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지만, 입점 자영업자들은 돈줄이 막히면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며 “입점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게 홈플러스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수연 기자

학생 50명인데 교직원 37명

충남 부여군 석성초등학교는 117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2023, 2024년 입학생이 0명이었다. 올해는 2명 들어와 전교생이 10명이 됐다. 2015년에는 35명이었다. 한 해 졸업생도 2019년 이후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학생이 감소하

자 군내 석양초등학교에 통합됐고, 석성초는 분교가 됐다. 석성초도 2015년 101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줄었다. 두 학교 학생이 10년 만에 136명에서 50명으로 63% 줄었다.

인구·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일행이 10일 석성분교를 찾았다. 분교 관계자들은 줄어든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걱정했다. 이날 관심을 끈 건 따로 있다. 석양초(석성분교 포함)의 학생이 50명인데 교직원이 37명이라는 점이다. 2015년에는 33명이었으나(교육부 통계), 학생은 크게 줄었지만 교직원은 약간 늘었다. 황석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은 줄었지만 학생 복지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맞춰 과거에 없던 상담사·

사서·영양사·방과후 교사 등이 새로 생기면서 교직원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석양초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광주광역시 중앙초는 학생 23명에 교직원이 26명이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소 담당 직원 등을 뺀 수업 전담 교원은 12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교사가 2학년과 4학년을 같이 맡으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본다.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앙초처럼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소규모 학교(학생 60명 이하)가 310곳이다. 초등학교가 219곳, 중·고교가 각각 79곳, 12곳이다. 교직원 초과 학교는 2020년 184곳에서 2021년 172곳으로 약간 줄었다가 2022년 204곳, 2023년 254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MBK 세무조사 착수

홈플러스의 대주주 사모펀드

국세청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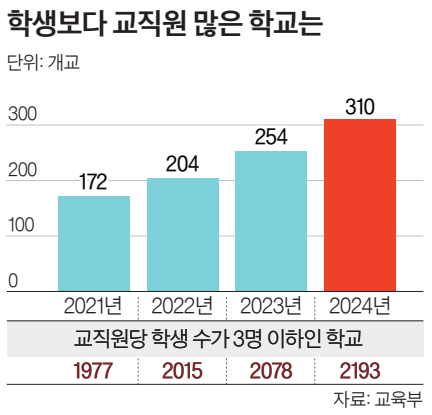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보통 담당한다. 특별한 혐의 점을 잡아내 조사하는 방식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5년마다 하는 정기적 세무조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 시각은 다르다. 조사 4국이 특별 조사 수준으로 MBK파트너스의 탈세 혐의를 살펴볼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6조원(기존 차입금 제외)을 들여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2조7000억원)를 금융권에서 빌려 충당했다. 이후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키우기보다는 ‘알짜’ 점포를 매각해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금 회수에 초점을 맞췄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도 논란이 됐다.

MBK파트너스는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약 40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왕정석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탐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탐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패어팩스스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양식멍게 3%만 살았다, 고수온 탓 어민 가슴에도 '멍'

작년 수온 30도까지 오르며 다 죽어
작업장 텅 비고 아직껏 경매도 못해

“매년 이맘때면 작업장마다 7, 8명씩
부대끼면서 멍게를 크기대로 분류하
고, 껍질까가 물차에 실어보낸다죠 정
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아직도 출하
가 없어 작업장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
다.” 지난 1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산양
읍의 해상 멍게 작업장에서 만난 70대
어민 김모씨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씨의 작업장뿐 아니라
인근의 10여개 작업장 모두 텅 비어 있
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고수온 여파
에 ‘바다의 꽃’ 멍게 양식 어가
의 한숨이 깊다. 멍게수확
식수산협동조합(멍게
수협)에 따르면 국내 연
안에선 연간 약 3만톤의
멍게가 생산된다. 이 중
70%가 통영·거제를 중심
으로 한 경남지역 어가 250
여곳의 약 800ha 양식장에서
나온다.
멍게 어가는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



1 지난해 고수온 여파에 경남 연안 양식장 멍게 97%가 폐사했다. 2 정상적으로 자란 멍게는 붉은빛을 띠며 바다의 꽃으로 불린다. 3 지난 10일 오후 경남 통영시의 한 수상 멍게 작업장에서 어민이 텅 빈 작업장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통영=김민주 기자, [사진 멍게수확식수협]

제철 활명게 출하를 알리는 첫 경매인
‘초매식’을 연다. 이 행사엔 어민·상인은
물론 통영시장 등 주요 기관장도 참석하
다. 하지만 올엔 아직 초매식도 열지 못
했다. 고수온에 대부분의 멍게가 죽었
기 때문이다. 수하식(생물을 수중에 매
달아 기르는 방식)멍게 양식은 밧줄 등
을 활용한 양식용 기둥에 멍게 종묘를
체결하고, 이를 통상 수심 3~15m의 바
닷물에 담가 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
다. 2년 정도 길러 성인 주먹 정도의 크
기가 되면 시중에 내다판다.

문제는 지난해 경남 일대 연안 수
온이 멍게 서식 적정 수온(10~20도)
을 크게 웃도는 30도까지 치솟으며 생
겼다. 멍게 양식어가는 여름철엔 하층
(15~20m)까지 양식용 기둥을 내리는
방식으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난해엔 하층 수온마저 30도를 웃돌
았다. 멍게수협이 지난해 8, 9월 전체 양
식어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멍게
폐사율은 97%로 나타났다. 드물게 수
심이 25m 정도에 있던 개체만 극소수
살아남았다.

일부 어민은 지난해 10월쯤부터 강
원도·경북도 등 고수온 피해가 덜했던

동해의 멍게들을 가져와 경남 앞바다
에 심었다. 하지만 출하는 5월 이후에
나 가능할 전망이다.

멍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양식어가의 출하가 막히면서 가격은 치
솟는 추세다. 예년의 경우 초매식 즈음
의 활명게는 1kg당(껍질 제거 후 간 멍
게 기준) 1만6000원 정도에 거래됐는
데 올해는 출하가 없어 가격 형성 자체
가 없다. 활명게 출하가 안 되면서 멍게
수협은 보유하던 냉동 멍게 100t을 시중
에 풀고 있는데, 1kg당 가격이 예년보다
30~40%가량 오른 1만6000원 선에서 거
래되고 있다. 해산물을 취급하는 통영
시내의 한 식당 주인은 “강원·경북산 활
명게가 한때 1kg에 4만, 5만원까지 올랐
다”며 “지금은 활명게 자체가 없다”고
했다.

고수온 폐사 피해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멍게수협에 따르면 경남 양식어
가의 멍게 폐사율은 2019년 20% 수준
에서 이후 매년 40~70% 수준을 오가
다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넘겼다. 어
민과 멍게수협,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등 “멍게양식 안정화 TF”를 꾸려 대응 마
련에 나섰다. 통영=김민주 기자

민주당, 공공기관장 임기 손댄다... 대통령과 임기 일치시키는 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과 공공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
기관운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 입장이
달라지는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제
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다음 날인 12

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
된 것만 53건”이라며 “불법 계엄 이후
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공공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 임기(5
년)와 같지 않다.

그래서 정권 교체 뒤에도 전임 정부
가 임명한 기관장이 남아 있고, 이들이

현 정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알박
기 논란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
석열 정부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했
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은 2022년 8
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독립성과 임
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현희 당시 국

민권위원장이 임기 3년)에 대한 국민의
힘의 사퇴 요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
표도 2023년 5월 윤 대통령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
을 재가하자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진 의
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윤

석열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진
정성을 증명하려면 문 정권 인사들부
터 즉시 사직시키라”고 비판했다. 홍성
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도의 전
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예외적으로 임
기를 보장하는 등 제도를 정밀하게 설
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정부, 시리아와 수교 잠정합의

쿠바 이어 북한 우방과 또 국교
북한에 적지않은 충격과 될 듯

정부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
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 수교에 잠
정 합의했다. 한국이 시리아와 공식 수
교를 맺게 된다면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
하는 게 된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에 이어 북한의 우방인 시리아와
도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 북한의 외
교적 고립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11일 “정부는 시리아와 수

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곧 국
무회의에 수교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가 급물
살을 타게 된 건 지난 24년 간 시리아를
철권 통치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게 계기가 됐다. 시리아 과도정
부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지
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
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냈다. 그리고 과도정
부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양



1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자유방패(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합 공중강습 훈련 중 수리는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이 수교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앞서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장은 지난달 5~7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를 방문해 아사드 알 샤이바니 시리
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면담했다.
당시 시리아 측은 적극적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실제 국제사회로부터 합법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과도정부는 알아사
드 정권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북한·러
시아 등과의 관계는 최소화한다는 방
침이라고 한다. 시리아 측은 특히 에너
지·통신·인프라·교육·보건 등 5개 분야
에서 협력을 기대했다고 한다.

이번 수교 잠정 합의는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한층 넓히는 동시에 윤석열 대
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에서도 속도감 있게 중요 외교 사안을 추
진해 성과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정영교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 첸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하세월’과 ‘허세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하세월.’
 위 예문은 신문 기사의 제목 등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어떤 사건·사고 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문제가 언제 해결 될지 모른 채 세월만 흐르고 있을 때,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에 이런 제목을 단다. 이처럼 어떤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막연하지만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하세월’이다. 그런데 ‘하세월’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하세월’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부지하세월’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다. 사람들의 입말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구조상 서술하는 부분인 ‘부지(不知)’를 빼면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인지 ‘하세월’만으로는 표준어가 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허세월만 보았다”에서와 같이 ‘허되이 보내는 시간’을 나타낼 때 ‘허세월’이란 단어를 쓰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세월’도 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허되이 보내는 걸 일컬어 ‘허송세월(虛送歲月)’이라 하는데, 이를 줄여 ‘허세월’로 쓰는 듯하다. 비슷한 표현으로 ‘허도세월(虛度歲月)’도 있지만, 너무 길고 어렵다면 ‘허세월’이라고 써도 된다. ‘허세월’은 보람 없이 지내 온 세월을 의미하는 단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레이커스 경기장에 뜬 숫자 ‘100’



정윤재
 사회부 기자

로스앤젤레스를 맞춰주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르브론이 수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레이커스의 수비 효율성은 리그 1위까지 상승했다. 뉴욕전 4쿼터에서 단 15점만을 허용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돈치치의 이적은 그의 친정팀인 매버릭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5일, 그는 트레이드 후 처음으로 친정팀 댈러스를 상대하며 19득점 15리바운드 12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 팀을 승리 이끌었다.
 경기 후 그는 “(댈러스가 날 트레이드한 것에 대해) 감정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경기장에서는 레이커스 팬들이 “땡큐 니코(Thank You, Nico!)”를 외쳤다. 댈러스 단장 니코 해리슨이 돈치치를 트레이드한 것을 비꼬는 의미였다.
 처음부터 이 트레이드는 논란이었다. 돈치치를 내보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상가상으로, 돈치치 트레이드 로 얻은 앤서니 데이비스마저 부상으로 결장하면

서 댈러스의 시즌 계획은 완전히 어긋났다.
 댈러스 팬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경기장에는 빈 좌석이 늘어났고, SNS에서는 ‘#해리슨아웃’ 해시태그가 트랜드에 오를 정도다.
 반면, 레이커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돈치치와 르브론의 조합은 공격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에서도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력까지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라서면서 팀의 완성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JJ 레디 감독은 “이제 우리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조직력과 팀워크가 우리의 새로운 무기”라고 강조했다.
 경기장에서는 르브론(23번)과 돈치치(77번)의 등번호를 합친 ‘100’이라는 숫자가 적힌 포스터와 사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두 선수의 시너지가 극대화했다는 의미이자, 팬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루카 돈치치의 합류는 레이커스의 DNA를 다시 세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 다시 한 번 NBA 정상에 노릴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레이커스 팬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댈러스가 돈치치를 레이커스로 보낸 이유는 쉽게 가능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이제 레이커스의 중심이며,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팀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고 있다.

열린광장

창고에 묻혀있는 이승만 초상화



제이 황
 화가

1978년 보리스 살리아핀의 부인은 이 작품의 역사적 가치와 희귀성을 인지하고, 이를 워싱턴 소재 국립인물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NPG)에 기증했다. 그러나 기증 후 이 작품은 미술관 전시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작품의 크기가 작아 전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필자의 지인은 NPG 관계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해졌다. 필자는 한인으로서 새로운 대형 유화 초상화를 제작해 박물관 전시에 적합한 작품을 기증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인물 자료를 수집

하고, 그의 내면 세계와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개월간의 작업 끝에 새로운 대형 유화 초상화를 완성했다. 특히, 기존 보리스 살리아핀의 작품에서 잘못 표현된 태극기의 궤를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태극기를 배경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국립인물화미술관(NPG)은 1856년 설립된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부속 미술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명성을 자랑하며 연간 1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다. 이곳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벨스 만달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초상화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한인 서양화가로서 개인적으로 본 작품을 국립인물화미술관에 기증하고 전시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기증 방법을 모색 중이며, 미술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공공외교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인물화 화가 보리스 살리아핀(1904~1979)이 1950년 제작한 작품 ‘한국의 이승만(Korea's Syngman Rhee)’은 그해 10월 16일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에는 “We have not despaired; we must not be disappointed(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제가 함께 실렸으며, 6페이지 분량의 한국전쟁 관련 중군 기사와 함께 발간되었다. 이 표지는 당시 한국전쟁의 참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리스 살리아핀은 이 작품을 수채화 물감에 고무를 섞어 불투명 효과를 낸 ‘구아슈(Gouache)’ 기법으로 제작했다. 모델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서울을 잃고 대전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미국 ‘LIFE’ 잡지와 인터뷰한 사진이었다. 표지의 부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전쟁 대국민 연설에서 발췌한 문구였다. 필자는 당시 발행된 ‘TIME’지를 소장하고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손 하이, 프로스트비들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상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자용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캔들리 하이 타운 \$599,999 방 3, 화 3.5, 1,980sqft, 맥, 워코아웃 지하 (맥, 볼베스), 50/286
2. 캔들리 하이 상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맥클린 하이, 릭서리키트 상글 (Evans farm) \$2,425,000 방 5, 화 5, 7,590sqft, 차고 3,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디자인	12. 페어팩스 타운 \$800,000 2010년, 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fairOkas mall/50/66/286
3. 캔들리 하이 상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5,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8. 맥클린 하이, 릭서리 상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디자인, 맥클린하이, 롱웰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 3, 화 3.5, 차고 1, 멘드유닛, 맥, 팬스, 파일츠, 센터빌 하이
4. 센터빌 상글 \$1,150,000 세입같은 모델홈,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솔라 패널, 6,228sqft	9. 맥클린 하이 상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급재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웰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4. 페어팩스 콘도 \$580,000 방 2, 화 2, 차고 2, 엘리베이터, 개단 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7/m, 66/286/Fair Okas mall, Fair lakes mall
5. 센터빌 상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 볼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워코아웃, 맥, 팬스	15. 센터빌 중심콘도 \$460,000 방 2, 화 2, 차고 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7/m, Giant, 66/28/29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살해 위험 속 임무 수행하는 공작원의 운명

장석광의 세계는 첩보 전쟁

국가정보연구원 사무총장



비밀 요원들의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A팀장이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보 요원들의 생명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했고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더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중형 이유로 밝혔다.

지난해 정보사는 신분이 노출된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비밀 요원 수십 명을 급히 귀국시켰다. 언론은 '정보 역사상 조유의 사건' '정보망의 궤멸적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요원들에게 협조했던 현지 공작원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전혀 없다. 왜 그럴까.

해의 공작은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서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나든다. 일반 행정부처는 언급생심 상상할 수 없는 정보기관 고유의 영역이다. 공작관은 칼날 위를 걷고 죽음과 춤을 춘다. 성공한 공작은 드러나지 않고 실패한 공작만 알려진다. 실패한 공작관은 죽어 귀환하거나 배신자가 되어 돌아온다.

1996년 10월 1일 강릉 무장공비사건으로 한반도에 준전시 상태가 보름 가까이 이어질 무렵 국정원 소속 최덕근 영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괴한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 공작원 소행으로 직감한 국정원은 최 영사의 시신을 최대한 빨리 서울로 운구할 것을 지령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시신의 완전한 보존이 쉽

지 않은 실정이라서 부패가 진행되면 독극물 검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까스로 확보한 최영사 살해 독극물

국정원 요원들은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론 인근 도시의 호텔·식당·시장 등을 돌면서 구할 수 있는 얼음이란 얼음은 전부 확보했다. 최 영사의 관은 세 겹, 네 겹 비닐로 싸 얼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최 영사는 그렇게 10월 5일 서울로 운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 영사의 시신에서 '네오스티그린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을 검출해냈다. 1995년 10월 부여에서 검거된 직파간첩 김동식이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형 독침 용과 같은 성분이었다.

최 영사가 피살되던 날 오전에 함께 있었던 한 인사는 몇 년 전 '최영사 추념 세미나'에서 필자에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최 영사는 옆에서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연해주 일대에서 북한의 위조 슈퍼노트(100달러 지폐)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데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식당에서 내가 최 영사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손해를 봐도 미국이 보지 우리가 봅니까. 미국 영사관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영사님이 그렇게 애를 씹니까?'라고 말했더니 최 영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미국 지폐라곤 하지만 북한이 위조한 슈퍼노트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가가 나를 여기로 보낼 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더는 할 말이 없어 '여기는 북한 벌목공도 많고 보위부에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알겠습니다'라며 살짝 웃더군요."



1 1996년 10월 5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최덕근 영사의 유해. 2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의 조문 모습. 3 체포된 러시아 요원 드미트리 폴라코프. 4 러시아 당국이 배포한 최영사 살해 용의자 모습. [중앙포토·사진 퍼블리시메인·국가정보연구원]



죽어서 돌아온 대한민국의 공작관의 유품에선 자필 메모지 한장이 발견됐다. '사나이가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은 여한이 없는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스파이 세계에서

는 최 영사처럼 감직한 인물보다는 변절한 사례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스파이가 배신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주요 동기를 '3W'로 설명한다. 와인(wine), 여성(woman), 돈(wealth)이다. 그러나 3W가 모든 스파이에게 먹히지는 않는다. 옛 소련의 드미트리 폴라코프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전동 공구, 작업복, 낚시 장비, 산탄총 등 가벼운 선물만 받았다. 그것도 1년에 3000달러를 넘지 않았다. 술은 거의 안 마셨고 아내에게 충실한 가장이었다.

칼날 위에서 죽음과 춤추는 스파이

드미트리는 우리나라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합쳐 놓은 옛 소련 총참모부 정보총국(GRU) 소장으로서 냉전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운영하던 최고위급 이중 스파이였다. 1961년 드미트리가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미국과 접촉하게 된 동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 아들의 비극, 소련 체제에 대한 환멸,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도덕적 신념이었다. 드미트리는 정치적 망명을 제안한 CIA 요원에게 "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미국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인으로 태어났고 러시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1986년 7월 드미트리의 25년 이중 스파이 활동이 그가 신뢰했던 FBI와 CIA의 배신자들에 의해 막을 내렸다. FBI의 로버트 한센은 KGB와 GRU로부터 140만 달러를, CIA의 올드리치 에임스는 270만 달러를 받고 드미트리를 팔았다. 1988년 3월 드미트리의 총살형이 집행됐다. 아버지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아들은 자살했고 집안은 풍비박산

이 되었다.

알면서도 가만두는 중국 정보기관

삼십여 년 전 일이다. 중국에 블랙(비밀 요원)으로 나간 후배가 3년도 채 못 돼 서울로 소환됐다. 신분 노출 때문이었다. 4년 전 단기 여학연수를 갔을 때 이미 신분이 노출됐고, 중국 정보기관은 그때부터 쪽 후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배는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고 국내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역시 그즈음이였다. 우연한 계기에 동남아의 한 우방국 정부 요원을 만났다.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자들의 귀순이 잦던 시절이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필자가 "당신들은 중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절대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이라고도 했다.

정보사 A팀장은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2017년 중국에 갔다가 공화에서 체포됐고 그때 포섭을 제외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의 직간접 경험상 A팀장의 공작망은 실상은 중국의 방첩망이었고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A팀장을 포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0여 년 전 단기 연수를 갔던 국정원 요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몇 년간 일연반구 없이 지켜왔던 중국이다. 14억 인구에 7억 대의 CCTV가 관할하며 길인들도 QR코드로 송금받는 세계 최첨단 디지털 사회가 중국이다. 최덕근 영사, 드미트리, 정보사 A팀장... 누구는 '왕관의 보석(the jewel in the crown)'이라고 추켜세우고 누구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하지만, 스파이는 '칼날 위를 걸으면서 죽음과 춤을 추는 극단적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대륙의 천재들

때로 어떤 취재 경험은 너무나 선명하다. 그중 하나가 10년 전인 2015년 1월 중국 베이징에 출장이었다. 우중충한 회색 벽돌 건물, 개진 유리창, 낡은 복도, 한눈에 봐도 구형 컴퓨터... 명문대에 기대한 첫인상은 실망이었다. 공대 연구실에 들어섰다. 먼지 쌓인 구석 수조에 노란색 '보트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반전은 다음부터다. 자세히 살펴보니 물고기 꼬리 움직임이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대학원생은 "고성능 수중 카메라만 달린 활용도가 무궁무진

하다. 미국에서 2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2억원) 이상 투자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비결은 단순했다. 대륙의 천재들의 '노오력'. 대학원생 면면부터 화려했다. 중국 광동성(2014년 기준 인구 1억800만 명), 쓰촨성(8100만 명) 등에서 대학 입시 1~5등을 차지한 인재라고 소개했다. 확률로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 수능 수석보다 나은 천재들이다.

하루 몇 시간씩 연구하느냐고 물었다. "15시간쯤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천재끼리 밥 먹고, 잡자는 시간 빼 대부



분을 연구에 매달린다는 얘기가. 우연히 들른 연구실이 그렇다면, 대체 중국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짐작조차 어려웠다. 당시 경험이 떠오른 건 연초부터 인

공지능(AI) 업계를 흔든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를 취재하면서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梁文鋒·40)은 2002년 중국 대학 입시 수석(저장대) 출신이다. 량원평 같은 대륙의 천재 수천수만 명이 하루 15시간, 어쩌면 그 이상 AI에 매달리는데 한국이 경쟁에서 이기기 바라다면 욕심이다.

감탄은 여기까지만. "중국에 한참 뒤진 AI 판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우울한 결말은 아니다. 모든 문제가 인구 때문이라면 저출산·고령화·톨레코스터를 탄 우리는 항상 질 운명이다. 하지

만 인구가 곧 승패는 아니잖나.

영일만 허허벌판에 제철소를 세우고(포스코),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수주하고(HD현대중공업), 모두가 물어뜯린 반도체 사업에 도전해 성공한(삼성전자)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맨 파워가 중국에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뛰어난 인재가 의대·로스쿨에 몰리는 현실이 짙다.

'K량원평'이 눈을 번뜩이는 대학 연구실, 한국판 딥시크는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김기환 산업부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행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시 설

국민통합 과제는 팽개쳐버린 정치권의 현재 협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의 압력이 점점가경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이후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현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박흥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삭발식을 했다. 전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죄신을 지어 재판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금요일(14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박지원 의원)는 섬뜩한 발언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현재 앞에서 탄핵 각하 1인 시위에 돌

**경쟁하듯 극단적 안행과 고발 쏟아내는 여야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는 윤 대통령도 문제**

입했다. 앞서 3·1절 서울 도심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현재 등을 겨냥해 “모두 때려부쉬야 한다”고 협박했다. 집회에선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즉시 처단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까지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공범’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연금이나 추가경정예산·상속세같이 시급한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 모습에 국민은 절망감을 느낀다.

이 모든 과정에 원인을 제공한 윤 대통령은 석방돼 관저에 돌아와서도 국민 화합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90도로 절하는 모습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지도자라는 인상만 심어줬다. 석방 직후 대통령실에선 “겸허하게 현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으나 석방 다음 날 관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등 ‘관저 정치’에 나선 모습이다. 공수처장 고발 등 여당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게 윤 대통령과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는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 때문에 당초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탄핵 찬반 갈등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국민 통합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행보와 맞물려 광장의 혼란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현재로부터 100m 이내 구역에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까지 밝혔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이후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라도 자중하길 바란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 외교력으로 막아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올해 한국을 이에 포함하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자신들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을 리스트에 올려 왔다. 그런 만큼 한국을 민감국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아직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DOE가 산하 국제 연구기관에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한국이 최종 리스트에 포함되면 DOE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인이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에 신청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다. 한·미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AI 공동연구 플랫폼이나 차세대 먹거리로 평가받는 양자컴퓨터 개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 및 합정 분야 협력도 장담할 수 없다.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800억 달러(약 116조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노벨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

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향해 강경카드를 꺼내든 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보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북아 핵도미노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약한 고리’를 때리기 위해 앞서 북핵이라는 원인 제거에 나서려는 게 먼저다.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에게 핵 공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향한 확고한 핵우산 제공 공약의 철저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게 미국이 우려하는 핵 확산을 막는 길이다. 아울러 우리 내부에서도 득보다 역효과가 큰 어설픈 핵무장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공세적인 수단을 쓸지 모르는데 동향조차 모른 채 있었다니 어처구니없다. DOE가 밝힌 민감국가 적용 시한까지 아직 한 달 남짓 남았다.

자칫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정부는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한국을 향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막아야 한다.

“현재·수사기관 수준 이런 줄 몰랐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국가기관들 수준이 이런지 정말 몰랐다.” 검찰 출신의 한 지인이 술잔을 기울이며 한 토로였다. 수긍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탄핵·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국가기관들의 선택엔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많았다.

물론 현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비상계엄을 ‘평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긴 건 경악할 일이었다. 더 경악한 건 체포 직전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느냐”라고 한 것이다. 굴러떨어질 걸 알면서도 바위를 밀어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적인 숙명이 정치에 있다.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 안 됐다.

민주당에도 엄연한 잘못이 있다. 지금 위기의 하루구조 자체(수사권 혼란, 탄핵 등 입법 독주 등)는 민주당이 깔아놓은 것이다. 이제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 대선’을 겨냥한 듯 조여드는 그물망이었다. 윤 대통령이 순진했다.

그러나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상황을 심화시켜 온 데엔 국가기관들의 ‘기여’도 상당하다고 본다. 국가가 아닌, 자기 이익(그게 어디든)에 봉직하는 듯하면서다.

먼저 헌법재판소다. 이미 초기에 ‘심판대 오른 건 현재도 마찬가지다’라고 썼다. 8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윤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닌 걸 지적하면서다. 현재가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 내길, 지혜롭고 신중하길 바랐다. 현재의 최근 결정을 보면,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며칠 일 하지도 않은 방위위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본 재판관이 4명이나 됐다. 현재를 9인 체제(현 8인)로 만들라고 결정했는데, 권한쟁의 청구 자격이 논란이 되자 국회에 보완하라는 ‘힌트’를 줬고, 보완했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자구(自求)였다.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란 동류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의의를 두른 채 방만했던 건 외면했다.

현재는 정작 국정 안정을 위해 절실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 민주당이 내란죄도 철회했잖나, 복잡할 게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현재의 선행 판단이 이러하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오해받기에 십상일 것이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현재에 상급법원이 있다면 문제삼을 것”(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란 비판마저 나오게 진행했다. 과연 현명했다.

검찰·공수처·경찰도 놀랍긴 마찬가지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정도는 동료 기자(임찬중)의 표현에 따르면 경찰>검찰>공수처다. 서로 드잡이하다가, 하면 가장 안 되는 데가 뉘아체 갔다. ‘판사쇼필’ 논란까지 낳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곤 수사하지 못했다. 복잡다단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그렇게 망가져 갔고, 결국 구속취소 결정까지 나왔다. 사전 경고도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직 간 경쟁심이 눈

**일련의 현재 결정이 논란 키우고
수사 경쟁이 수사 망친 측면 있어
국가 아닌 이익집단 행보 아닌가**

을 흐렸다.

이로 인해 불온한 공기가 더욱 불온해지고 있다. 현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욕을 먹게 돼 있고, 법원·수사기관은 성향에 따라 고르느(또는 욕하는) 대상이 됐다. 미래를 내다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현재가 대통령을 파면해도 이후 법원에서 공소제기 절차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가능성(최재형·김용)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든, 특검이든 수사해 기소하면 된다지만 그 혼란은 어떻게 할까. 만에 하나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대로 법원에서 내란죄에 의문을 표시한다면?

한때 우리도 어느 정도 국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꼈다. 아니었다. 누구보다 국가의 높이에서 성찰해야 할 위기에, 국가기관이 개인이나 조직·집단 수준에서 행동했다. 내로라하는 엘리트들이 이끄는 기관들이 오히려 위기를 키웠고 키우고 있다. 참담한 일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치처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FINANCIAL TIMES 일본·NHK, NHK NEWS, NHK WORLD, NHK WORLD PREMIUM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① 워싱턴 중앙일보

2025년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취재 기자: 0명

*높은 조건의 연봉
*취업에 걸림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kdclass2018@gmail.com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 210,000



독점 LORTON 타운홈 렌트

엔드 유닛, 2 Car Garage,
최고로 업데이트된 럭셔리 홈,
전체 나무 마루, 탁 트인 부엌, 넓은 DECK
방4, 화3 1/2

\$ 3,600



독점 Fairfax 콘도

탑 플로어, 엔드 유닛, 큰 사이즈, 방2, 화2, 완전 리모델링
부엌과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예쁜 콘도, 코스트코와 페어팩스를 가까움

\$450,0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7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March 12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뜨거운 음식 먹고 바로 찬물 '벌컥' ... 치아에 미세 균열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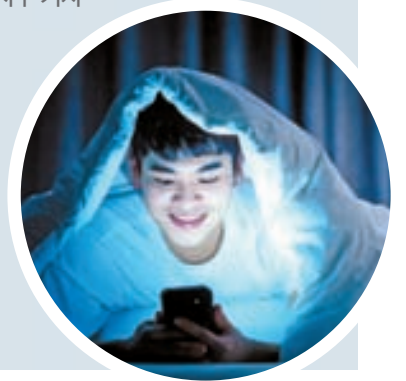
치약에 물 묻히면 세정력 '뚝'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 치아가 약해지면 소화불량은 물론 영양 불균형, 면역력 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치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치아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은 온도 차가 큰 음식을 연달아 먹는 행동이다.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먹고 열기를 식히려 바로 찬물을 마시는 게 그런 예다. 이 경우 치아 표면의 법랑질이 수축과 팽창을 거듭해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시립 등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좌우로 양치질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중앙대병원 치주과 서지영 교수는 "좌우로 문지르기만 할 경우 치아 표면이 마모돼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사소하지만 잘못된 양치 습관은 또 있다. 치약을 사용할 때 물을 묻히는 행동이다. 치약 속 연마제 성분은 물에 닿으면 희석돼 세정 효과가 떨어진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째 다음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게 좋다.



출처: GettyimagesBank

건강을 위한 습관 리모델링 금주와 금연, 매일 운동하기, 밀가루 음식 끊기... '건강관리' 하면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온도 차가 큰 음식을 연달아 먹지 않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엷드려 눕기보다 바로 앉는 식이다. 더 늦기 전에 부위별 잘못된 습관을 점검하고 바로잡자. 하수수 기자



볼 끄고 폰 보다가 녹내장 위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다. 만약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면 주변 밝기와 자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칫하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녹내장은 당뇨병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통한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방수(눈 속에 있는 물)가 지나가는 길인 전방각이 좁아지거나 폐쇄되면서 생긴다.

문제는 어두운 환경에서 엷드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근거리의 스마트폰을 보면 동공이 커지고 수정체가 앞으로

쏠려 방수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장인 정종진 안과 전문의는 "밤중에 스마트폰을 쓸 때는 주변을 밝게 하고, 엷드리기보다는 빠르게 앉거나 천장을 본 채 누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어두운 곳에서 2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일도 피하도록 한다"고 조언했다.

최고의 관리법은 '그대로 두기'
청각은 주변 환경을 지각하는데 중요한 감각이다. 돌발 상황에서는 시각보다 빠른 반응을 보여 안전에 도움을 준다. 청력을 유지하려면 습관적으로 귀지 제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귀지는 세균으로부터 외이도(귓바퀴에서 고막까지의 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저절로 밀려 나와 배출되기 때문에

귀이개나 면봉으로 파낼 필요가 없다. 억지로 파내면 오히려 외이도나 고막에 상처를 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어폰 사용 습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어폰을 쓸 땐 한 시간마다 10분 이상 귀에 휴식시간을 주고, 난청과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 볼륨은 최대치의 50~60%로 유지한다. 소음 제거(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제품을 쓰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주변 소음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음량을 낮춰 듣게 돼 청력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뜨거운 물·바람 피하기
두피 건강의 악화는 탈모뿐 아니라 가려움, 비듬, 염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예방하는 핵심은 '저 자극'이다. 일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

는 등 두피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해 건조함을 유발하고 모발을 약화할 수 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도록 한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도 가급적 찬 바람을 이용해 건조한다. 흔히 머리를 자주 감는 습관이 탈모를 촉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교수는 "머리를 자주 감는 습관은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오히려 탈모 예방에 좋다"고 말했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는 얘기도 낱설이다. 모자 착용 자체가 아닌, 꽉 끼는 모자를 쓰는 게 모낭염 등을 야기해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뇌전증은 불치병 아닌 흔한 질환 '식이요법' 중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꼽힌다.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지만 선입견이 유난히 많은 질병이다. 예측하기 힘든 발작 증상이 때때로 나타나 '불치병'이나 '정신병'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그러나 뇌전증은 정확한 진단을 거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적절히 치료받으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세계 뇌전증의 날'(2월 10일)을 계기로 뇌전증의 특징을 이해하고 질병에 현명하게 대처하자.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간헐적으로 흥분해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발작이 두 번 이상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다. 뇌전증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환자 발생 양상은 U자 곡선 형태를 띤다. 발병률이 영유아기에 가장 높고 청장년기에 낮아졌다가 노년기에 다시 높아진다. 세브란스병원 소아 신경과 김세희 교수는 "뇌전증은 100명 중 한명 정도가 앓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며 "한국엔 약 4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뇌 질환 가운데 치매(70만 명), 뇌졸중(60만 명)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발작 모습 촬영해 가면 진단에 도움
뇌전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인 결함이 있거나 뇌종양, 뇌졸중, 뇌손상, 뇌염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약 50%는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 뇌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발작이다. 대체로 발작이 10초~1분 정도 지속하고 수초에서 3~4시간에 걸쳐 회복한다.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종류는 크게 부분성과 전신성으로 나뉜다. 부분 발작은 한쪽 뇌에 국한해 발작이 시작되지만, 주위로 널리 파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있거나 ▶입을 찹찹거리거나 ▶한쪽 팔을 까딱거리는 식이다.

Tip

발작 목적했을 때 응급처치법

- 1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기
- 2 주변에 뽀족하고 단단한 물건 치우기
- 3 숨 쉬기 편하도록 넥타이·허리띠·단추 풀기
- 4 옆으로 눕혀 기도 막히지 않게 하기
- 5 하루 수회 이상 발작하고 5분 이상 지속하면 119에 신고해 응급실 이송하기

자료: 대한뇌전증학회

전신 발작은 뇌의 일부에서 발작이 시작되지만, 뇌 전체로 빨리 전파된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호흡근관이 오거나 얼굴이 과하게 질리며 몸을 떠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때론 근육이 불규칙하게 수축해 식사 중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양치질을 하다 칫솔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진단의 첫걸음은 병력 청취다. 발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눈·손은 어떤 모양이었으며 얼마나 지속했는가를 의사가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진료를 보러 갈 때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환자의 발작 모습을 촬영해 간다면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전증이 의심된다면 뇌파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시행해 뇌전증과 발견되는지, 발작을 유발하는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유전자 검사나 대사성 이상 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도 진행한다.



“ 뇌전증, 인구 100명중 1명 앓아 환자의 70%는 약물로 증상 완화 난치성 뇌전증은 수술 치료도 ”

뇌전증 환자 10명 중 7~8명은 약물로 증상이 조절된다. 항발작제는 뇌전증 발작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뇌세포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미약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발작을 저지한다. 실제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뇌전증 환자의 60% 이상은 발작 없이 생활하고, 약 20%는 수개월에 한 번 정도 드물게 발작한다. 김 교수는 "약물치료를 할 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의 용량을 임의로 줄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통 2~3년

정도 약물치료를 하면서 발작이 없을 경우 일부는 약물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 합병증 검토해 수술 결정
문제는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발작이 잦고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다. 바로 난치성 뇌전증이다. 이런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모든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예상되는 수술 결과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면밀히 검토해 수술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그중 하나가 뇌자도 검사다. 사람의 뇌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가장 최신의 뇌 검사법이다. 뇌 신경 활동을 직접 기록하면서 문제가 있는 뇌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뇌 신경이 활동하거나 흥분할 때 발생하는 전류는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뇌자도 검사 헬멧의 특수 센서가 이 자기장을 측정한다. 국내 유일의 뇌자도검사실

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운영한다. 검사는 뇌전증지원센터 도움 전화나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예약한 후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2023~2024년 뇌자도 검사를 받은 환자는 총 366명"이라며 "뇌자도 검사는 선별 급여라 부담이 커서 많이 시행되지 못했는데, 필수 급여화가 된다면 좀 더 많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이요법도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케톤식이다. 밥·빵·면과 같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낮고 버터·오일·베이컨·아보카도 등 지방의 비율이 높은 식단이다. 케톤 식이요법을 하면 신체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케톤이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케톤 식이를 시작하려면 뇌전증 전문의와 영양사를 만나 개별 식단을 짜는 게 좋다.
김선영 기자

치주 질환 막는 치아 스케일링, 1년 두 번은 해야

구강 위생 관리의 기본은 칫솔질이다. 치아 표면은 물론 잇몸·혀 등 입 안을 구석 구석을 칫솔로 문질러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김근서 교수는 "치실, 치간 칫솔, 구강세정기 등 보조용품을 추가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칫솔질은 기계·물리적 자극으로 입속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이 맞닿은 경계 부위에 칫솔모를 45도 기울여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면서 10초 정도 왕복한다. 중앙대병원 치주과

서지영 교수는 "칫솔을 좌우로 세계 문지르면 치아 표면이 마모되면서 이가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입속 세균, 잇몸 혈관 통해 전신 염증도 찬물 등 외부 자극으로 이가 시리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민감성 치아는 충치, 치주 질환, 치아 균열 등 다양한 치과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아보존과 서덕규 교수는 "병적 원인이 아닌 나이가 들어 잇몸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민감성 치아라면 신경 자극을 차단하는 민감성 치아 전



용 치약으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약 속 질산칼륨 성분이 치아 표면의 상아 세관을 차단해 이가 시린 증상을 완화한다. 대한

치과보존회에서도 일차적으로 민감성 치아 전용 기능성 치약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기상 직후 입 냄새가 심하다면 자기 직전 칫솔질을 한번 더 한다. 김근서 교수는 "대부분은 1회 칫솔질로 치면 세균막의 40% 정도만 제거한다"고 말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타액(침) 분비량이 줄어 입속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아침에 일어난 후 먹은 게 없는데도 입 냄새가 심한 이유다. 자기 전 칫솔질을 습관화하면 취침 중 입속 세균 증가

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칫솔질할 때 구강결정제로 가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강결정제는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구강 위생 관리를 보완한다. 동글게 굴곡진 입 안은 기다란 막대 형태의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 지대가 75%나 된다.
소아청소년기에는 충치 관리에 신경 쓴다. 영구치가 나면 충치가 생기기 쉬운 어금니의 홈을 매워 주는 충치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권선미 기자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 Anthem(Liberty) • Aetna • Humana • United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유독 내 아이만 또래보다 작거나 살쪘다면... '운·수·식' 규칙 점검해봐야

(운동·수면·식사)

성장기 아이 관심 가져야 할 자녀 건강

학부모들은 학습 준비만큼 자녀의 건강 상태에 신경 쓴다. 등하교길 또래보다 키가 유난히 작거나 성숙한 자녀 모습에 성장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학교의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아이 말에 다급해지는 게 부모 마음이다. 자녀의 이런 신체 문제는 건강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하게 관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선영 기자

키 또래보다 작아도, 커도 걱정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체격이다. 또래보다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지 살피게 된다. 아이의 키가 아주 작아서 고민이라면 병원에서 성장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좋다. 같은 성별·연령대 어린이 100명 중 키가 뒤에서 3번째 미만인 경우 저신장증에 해당한다. 저신장증은 기본적으로 성장호르몬 결핍 같은 질병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특정한 질병 없이 부모 키가 작은 가족성 저신장이거나 체질적으로 늦게 성장하는 체질성 성장 지연인 사례다.

저신장증은 보통 성장호르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 성장호르몬은 뼈를 성장시켜 신체의 최종 키와 골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내분비내과 김자혜 교수는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아이에겐 효과가 있지만,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고 키가 정상 범위인 아이들에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치료 시작 나이나 기간에 따라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거쳐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엔 너무 빨리 커도 문제다. 주변에서 "저학년생 맞느냐" "벌써 여자·남자 티가 난다"는 말을 자주 들어 성조숙증에 대해 알게 되는 부모가 많다. 성조숙증은 여아 8~9세, 남아 9~10세에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현상이다. 이 나이대 여아에서 ▶유방이 발달하거나 가슴 멍울이 잡히는 경우 ▶초경을 시작한 경우 ▶여드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 ▶일시적으로 키가 급격히 성장한 경우에 의심할 수 있다. 남아는 ▶고환이 커지기 시작한 경우 ▶음경이 길어지고 검은색으로 변한 경우 ▶몽정하는 경우 ▶머리·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성조숙증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성조숙증이 발생하면 아이는 남다른 외형에 스트레스받기 쉽고, 성장이 일찍 끝나 최종 키가 작아진다. 따라서 2차 성징이 일찍 시작됐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신체 발달 정도를 또래 수준에 맞추고, 최종 성인 키가 줄어드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식사·수면·운동 삼박자를 갖춰야 적절히 성장한다. 성장에 도움되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챙

겨 먹인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엔 숙면하도록 돕는다. 또 줄넘기나 스트레칭, 수영, 농구, 탁구, 자전거 타기 같은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비만 체형 문제 넘어 합병증 위험
요즘 성인 못지않게 어린이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비만학회의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비만을 진단할 땐 체질량지수(BMI)를 활용한다.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이다. 체질량지수가 성별·나이를 기준으로 95백분위수 이상(100명 중 상위 5등 이내)일 때 비만으로 판단한다.

어릴 때 비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백질·칼슘·아연 등 성장 영양소 섭취하고 숙면하고 꾸준히 운동해 성장판 자극해야 6~10세 땀 근시 악화 안 되도록 시력 교정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인혁 교수는 "비만인 아이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염,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함께 커진다"며 "최근엔 이런 질환이 성인이 되기 전, 즉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에선 약물치료가 최우선 선택지가 아니다.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부터 개선한다. 식이요법은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되 각종 영양소 균형이 고르게 잡힌 식사가 원칙이다. 열량 섭취를 줄이려면 외식 빈도를 낮추고 간식으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과일이나 채소를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조리함으로써 살피지 않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유도한다. 물 대신 주스나 청량음료를 즐기는 습관도 고친다.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 꾸준히 운동하기와 일상에서 신체 활동 늘리기

다. 운동의 경우 최소 주 3~5회, 한 번에 30~60분간 한다. 이때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 운동 강도를 적절히 섞어 흥미를 돋운다. 일상에선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고 방 청소하기, 마트에서 장 보기 같은 신체 활동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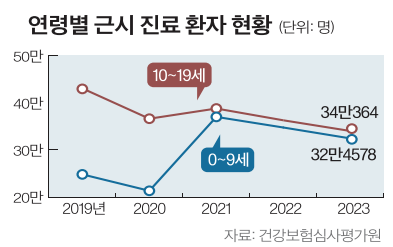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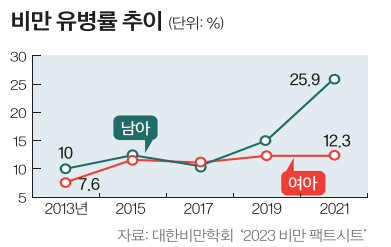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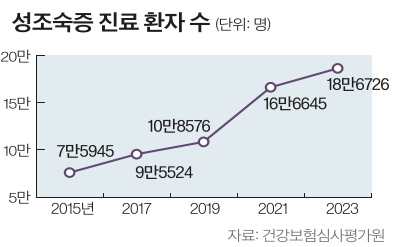
무엇보다 어린이 비만은 가족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류 교수도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아이에게 금지한 행동을 가족이 하거나 아이에게 먹지 못하게 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금물이다. 가족이 함께 식사·운동 일기를 쓰고, 일과를 점검하는 것도 아이의 체중 관리에 도움된다.

근시 치료 늦으면 급격히 악화
자녀의 눈 건강도 큰 관심사다. 어릴 때 흔하게 나타나는 근시와 사시는 급격히 진행되므로 제때 치료에 나서야 한다. 근시는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보다 앞에 초

점을 맺어 멀리 있는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질환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깜빡이고 고개를 기울인 채 앞을 바라보는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근시 교정법은 안경 착용이다. 교정 시력이 1.0 정도가 나오도록 도수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게 좋다. 초등학생이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력 검사를 하고 안과 의사와 상담해 안경 교체 주기를 정한다. 최근엔 잠잘 때 착용해 각막 형태를 변화시켜 근시를 교정하는 각막굴절 교정렌즈나 안구 길이의 성장을 억제해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점안약도 쓰인다. 무엇보다 근시 치료는 질환이 많이 진행된 12세 이후엔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6~10세 전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사시는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는 질환이다. 다른 곳을 보는 눈이 코 방향인 안쪽으로 돌아가면 내사시, 귀 방향인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외사시, 위나 아래로 돌아가면 수직사시다. 국내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간헐외사시 비중이 큰 편이다. 아이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멍하게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밝은 곳에 나갔을 때 한쪽 눈을 찡그리는 증상이 있다면 간헐외사시일 수 있다.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7 ~ 4/11 → 전화 예약 필수!

구인

- 애난데일 사무직원 구함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 분)
- Billing Coordinator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건강 칼럼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47세 여자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의 증상은 구토 및 안구떨림(안진)을 동반한 심한 어지럼증이였다. 진단은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이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신경학적 증상이다. 신경내과를 찾아오는 어지럼증 환자의 수를 헤아려보지 않더라도, 인구의 10%이상에서 평생 어지럼증을 한번 이상 경험한다고 한다. 어지럼증이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어지럼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관한 것들이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하는 등의 물음이다.

어떤 음식이 어지럼증에 좋은지에 대한 답으로, 좋은 음식을 찾아먹기보다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알코올은 매우 전정기능에 해를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가운데 하나다. 또한 대표적인 것으로 커피, 차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에 대한 물음이다. 카페인이 어지럼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매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 중의 하나인 전정신경염의 경우, 카페인 섭취가 이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어 카페인의 섭취가 전정기능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카페인은 미세혈액순환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취가 이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어 카페인의 섭취가 전정기능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카페인은 미세혈액순환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전정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정기관에 대한 운동으로 한쪽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나머지 한쪽의 전정기관으로 평생 살아야 하므로 전정기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게 된다.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평형 운동이 된다. 요가, 필라티스나 기공과 같은 한발로 서는 동작을 많이하는 운동도 어지럼증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운동은 안구운동을 촉진하고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므로 이 또한 매우 좋은

운동 가운데 하나다. 운동중추는 다리를 하나씩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걷는 동작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단을 하나씩 세면서 내려가기보다는 두 개씩 세면서 내려가면 매우 효율적인 운동이 된다. 또한 계단을 빨리 올라가는 운동은 심폐기능과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고 순발력을 키워준다. 계단이야말로 흔들지 않는 전정기능과 운동 중추를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기구인 셈이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병원리포트 삼성서울병원 박연희 교수팀

폐경 전 전이성 유방암, 팔보시클립·호르몬 요법 병합 치료 효과 확인



폐경 전 유방암 환자에게 사이클론의 존성키나아제 억제제(CDK4/6) 계열의 팔보시클립과 호르몬 요법을 병용

하는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안희경·김지연 교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석아 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펄(Young-PEARL) 연구 임상 2상의 전체 생존 기간 결과를 발표했다.

영펄 연구는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HR+)과 허투음성(HER2-)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다기관 임상 연구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 분과의 주도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팀은 2019년 폐경 전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팔보시클립과 호르몬 요법을 병합했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입증했다. 팔보시클립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CDK4/6를 억제해 암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다.

특히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유방암(HR+)에 효과가 크고,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와 비교해 부작용이 적다. 연구 결과에서는 팔보시클립과 여성 호르몬을 줄이는 엑스메스탄, 류프로렐린을 병용 투여할 때 기존에 주로 쓰던 세포독성 항암제인 카페시타빈보다 병의 진행을 막는 효과가 더 우수했다.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한 해당 연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2년 폐경 전 유방암 치료 가이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장기 추적 관찰(중앙값 54개월) 결과도 마찬가지다. 병용 요법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19.5개월로 카페시타빈 단독 요법군 14개월을 앞섰다. 전체 생존 기간은 각각 54.8개월, 57.8개월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작용 빈도와 삶의 질 결과에선 장점이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병용 요법이 폐경 전 진행성 유방암에서 우선적인 치료 전략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카페시타빈을 먼저 투

여하고, 이후에 CDK4/6 억제제로 치료받으면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어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연령대가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24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발생은 40대에서 가장 빈번하고, 50대가 그다음이다. 유방암 진단 당시 나이의 중앙값은 53.4세로 서구권과 비교해 발병 나이가 이른 편이다.

연구를 주관한 박연희 교수는 “폐경 전 유방암 환자에게 삶의 질과 치료 결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기회를 찾았다”며 “국내 연구가 글로벌 표준치료 전략을 바꾸는 계기를 다시 만들면 더 많은 국제 임상 연구를 수행해 새로운 치료 선택지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경 기자

전문의 칼럼 이세원 이대목동병원 혈액내과 교수

혈액암 ‘골수증식종양’ 종류 따라 맞춤 치료해야

골수증식종양은 골수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져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자칫하면 급성 백혈병으로까지 진행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지만 골수증식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혈액암 중에서도 만성 질환에 속하며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이다. 증상이 나

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상을 모르다 건강검진 중 혈액검사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한다.

골수증식종양으로 확인되면 종류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적용한다. 골수증식종양은 ▶진성 적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일차성 골수섬유증 등으로 나뉘는데, ‘진성 적혈구 증

가증’일 때는 적혈구 수 증가로 혈전증(핏덩이인 혈전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나 심부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혈전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사혈을 하거나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의 치료도 혈전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혈전증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로 큰 경우 저용량의 아스피린, 혈소판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약제를 복용한다. 저위험군이면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혈구 수치만 추적하기도 한다.

‘일차성 골수섬유증’의 경우 뚜렷하게 발현되는 증상이 없고 백혈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낮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빈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

수혈, 조혈 촉진 호르몬제 등의 치료를 하며 경과에 따라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임상적으로 백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기 때문에 환자 나이가 젊거나 자주 수혈을 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완치를 위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진료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	---

703.394.4818

www.footankled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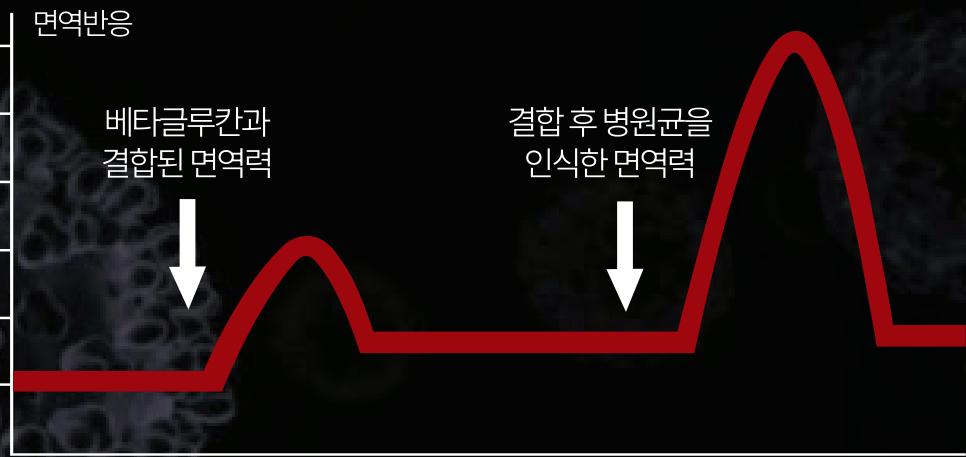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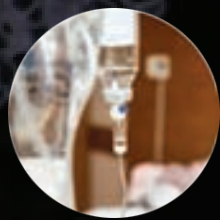
강력한 면역 활성화 물질-

베타글루칸

단기간에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분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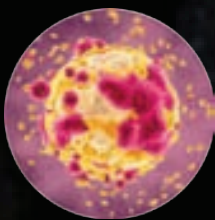
(출처: Journal of Food Additives Vol 16, 12/2021 pg 8-18)



암투병



항암 치료 후 재발 관리



만성염증



조강일
내과전문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우메켄 **NEW** 베타글루칸

- 영지버섯
- 상황버섯
- 차가버섯
- 꽃송이버섯
- 녹각영지버섯
- 동충하초
- 송이버섯
- 마이다케(양새)버섯
- 아가리쿠스버섯

9가지 항암버섯에서 추출한 우메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함량을 **280mg**으로 올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면역력을 위해! 우메켄 베타글루칸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암 치료 중인 분
-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
- 고열이 자주 발생하여 몸이 떨리고 질병 회복 기간이 긴 분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 백혈구 수치가 낮아 구내염, 설사, 감기, 독감에 자주 걸리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소셜연금에 세금 없애자” 논의 점화될 듯

백악관 “팁·오버타임과 함께 면세 추진”

재원 마련 구체적 방안 있어야 지속성 확보

최근 소셜연금 변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토마스 매시 연방하원 의원이 ‘시니어 세무 폐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소셜연금 과세를 이중과세로 보고 폐지함으로써 중산층 시니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7일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팁과 오버타임, 소셜연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없애는 포괄적인 감세를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소득원인 소셜연금은 ‘견드리먼 위험한 정치적 지뢰’로 여겨졌다. 많은 정치인들이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떤 조치도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쉽게 손을 대지 않았다. 개혁 방향도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시됐던 혜택 축소나 수령 연령 지연이 아니라 세금 폐지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 가능성이 커진 소셜연금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을까.

올해 소셜연금을 받는 시니어는 약 5200만명이다. 월 평균 수령액은 1975.34달러다. 금액이 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시니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계비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3년째 매년 은퇴자에게 소셜연금 의존도를 묻는다.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매년 80~90% 사이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88%가 생활비에 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셜연금의 안정적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지만 지난 40년간 재정 기반은 계속 약해졌다.

▶지금대로면 수령액 21% 줄 수도
사회보장제도 이사회 (Board of Trustees)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평

가한다. 1985년 이후 소셜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는 1985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발표한 장기 재정 부족액은 23.2조 달러였다. 2023년과 비교하면 8000억 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OASI)은 2033년까지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연금 지급 일정과 생계비 조정액(COLA)을 유지하려면 2033년 이후 지급액 축소가 불가피하다. OASI 기금이 고갈되면 지급액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자들의 연금이 2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소셜연금이 악화된 원인으로 ‘의회가 기금을 유용했다’라거나 ‘불법 이민자들이 연금을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출생률과 합법적 이민 감소 같은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

▶트럼프,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지 밝혀

소셜연금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안으로 여겨지지만 대통령 후보에게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연금 개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시니어는 사회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폭스앤프렌즈(Fox & Friends)’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소셜연금 과세는 1983년 도입되었다. 당시 연금 준비금이 거의 고갈되자, 연방의회는 초당적 합의 끝에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로널드 레



백악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셜연금 과세 폐지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시니어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건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보장제 인상과 소셜연금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1984년부터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50%까지 과세 대상이 되었고, 1993년에는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이 과세 기준이 40년 넘게 몰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전체 은퇴 가구의 10%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약 50%가 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 과세는 시니어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장기적으로 부작용 초래 가능성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큰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1조 351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는데 이 중 91%는 사회보장제였다. 소셜연금 과세에서 나온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은 507억 달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33년까지 소셜연금 과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약 9439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세금을 폐지하면 일부 시니어에게는 단기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족을 심화시키고 기금 소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가 성공하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대체 재원을 마련해도 과세 폐지 이전에 제기됐던 재원 고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다른 난관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뿐 아니라 팁과 오버타임 과세도 폐지하려 한다. 세 가지가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연관된 정책이 되면

해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과세 정책이 소셜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시 후보가 내놓은 팁과 오버타임 과세 폐지 공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소셜연금의 적자를 9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소셜연금과 팁, 오버타임 과세 폐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소셜연금의 재정 부족은 10년 동안 1조 85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이는 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결국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과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하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소셜연금 과세 논의는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폐지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한다.

안유희 객원기자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인생 교훈

시니어 작가인 제이니 이머스(Janie Emaus)가 소개한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인생 교훈’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조언과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 제이니 이머스의 조언을 참고해서 우리도 손주들을 위한 인생 교훈을 남겨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꿈을 따르라= 누구도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손녀는 댄서와 배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손자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들에게 내 할머니의 말씀을 반복했다. 누구도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게 말하도록 두지 마라. 좇고 싶으면 좇아라.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라.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한때는 젊었다. 모두 꿈에서 시작했다.

▶비오는 날을 위해 아껴두라=우산은 비를 맞으며 걸어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된다. 손주들에게 저축과 401(k) 프로그램을 설명해야 한다.

▶피부를 관리하라=할머니 세대는 비누를 사용하여 피부를 깨끗이 씻었다. 현대는 아름다운 피부와 영원한

젊음을 강조하면서 햇빛을 너무 많이 쬐고 있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불가능하니 젊어서 피부를 잘 관리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삶이 아무리 잔인해 보일지라도 곧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을 가르쳐라. 모든 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라=유머 감각을 심어주고 웃게 만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라. 손주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이 집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라.

▶편리한 도구 상자를 마련하라=손주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도구상자를 사주라. 항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간단한 일을 고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라.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으면 삶이 훨씬 쉬워진다.

장병희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리스타운 북대문 한양대(H+M)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잭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양대(H+M)과 잭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 척추사랑

문동주 159km로 돌아왔다

시범경기 1이닝 2탈삼진 부활투
지난해 어깨 통증에 시즌 조기 마감
겨우내 회복·재활, 1군 마운드 올라
“경기감각만 올라오면 될 것 같아”

시속 160km가 보인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문동주(22)가 올 시즌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시속 159.7km짜리 ‘광속구’를 던졌다.

문동주는 11일 SSG 랜더스와의 인천 시범경기에서 팀이 8-0으로 앞선 6회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투구 수는 19개, 직구 8개, 슬라이더 4개, 커브 3개, 포크볼 3개, 투심 패스트볼 1개를 섞어 던졌다.

가장 눈에 띈 건 구속이다. 문동주는 2사 후 고명준을 상대로 3구째 직구를 던졌는데, 전광판에 시속 159km가 찍혔다. 4구째 포크볼로 숨을 고른 뒤 5구째 다시 선택한 직구의 구속은 시속 158km이었다. 양 팀 더그아웃과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고, 이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이택근 해설위원은 “포수 미트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표현했다.

문동주는 한국 야구 ‘시속 160km 시대’의 문을 연 투수다. 2023년 4월 12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 1회 1사 후 박찬호 타석에서 3구째 시속 160.1km의 광속구를 던졌다. KBO리그가 피치 트랙킹 시스템(PTS)을 도입한 2011년 이후 시속 160km 벽을 넘은 최초의 국내 투수였다. 당시 중계화면에 찍힌 트랙맨 데이터는 시속 161km, 광주 가야챔피언스필드 전광판 데이터는 시속 159km였다.

KBO리그는 올해 공식 구속 측정 장비를 PTS에서 트랙맨으로 교체해 전국 야구장 전광판과 중계 구속을 하나로 맞췄다. 트랙맨은 일반적으로 PTS

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나온다. 이날 트랙맨 기준 문동주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60km, 최저 구속은 시속 157km였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정확한 구속은 시속 159.7km였는데, 160으로 반올림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문동주는 올 시즌 다소 더딘 출발을 예고했다. 어깨 통증으로 지난 시즌을 조기 마감한 뒤 겨우내 회복과 재활에 전념했다. 스프링캠프에선 몸 상태를 신중하게 살피며 페이스를 천천히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문동주가 올 시즌 불펜에서 뛸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이에 김경문 한화 감독은 “문동주 보직은 선발투수”라고 수차례 못 박았다. “투구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짧은 이닝을 던지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역할은 선발이다. 4월 안에는 1군 마운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도 문동주의 6회 등판을 예고하면서 “선수 자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발로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동주 역시 장기인 광속구를 한껏 뽐내며 견제함을 알렸다. 정규시즌이 개막하고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시속 160km를 넘어 최고 구속까지 경신할 전망이다. 문동주는 “정말 오랜만에 실전 피칭을 했는데, 구속보다는 건강하게 잘 던지고 내려온 점이 더 만족스럽다”며 “이제 경기 감각만 조금 더 올라오면 될 것 같다. 하루빨리 선발로 돌아와 (팬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 다섯 번째 투수로 등판한 3년 차 김서현(21)도 최고 시속 156km의 광속구를 앞세워 1이닝을 1탈삼진 퍼펙트로 막아냈다. 2023년 홈런왕 노시환은 4회 3점 홈런을 터트리면서 2안타 4타점으로 활약했다. 한화가 8-0으로 이겼다.

배영은 기자



한화 이글스 투수 문동주가 11일 SSG랜더스와 시범경기 6회에 ‘광속구’를 뿌렸다. 인천 SSG랜더스필드 전광판에 시속 159km가 찍혔다. 정확한 최고 구속은 159.7km였다.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시속 160km를 넘어 개인 최고 구속까지 경신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사진 한화이글스]

명품조연 심성영·한엄지, 이제는 주연급 존재감

전 소속팀 주전경쟁 밀려 이적 선택
“챔피언전 올라왔으니 우승해야죠”
“빛을 못 보던 선수가 중요할 때 펄펄 날면 승리보다 더 큰 쾌감이 있다. 그런 선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 위성

우 감독은 10일 열린 2024~25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5차전 홈 경기에서 청주 KB를 53-45로 꺾은 뒤 이렇게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은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챔피언전에 올라 통산 11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위 감독이 떠올린 ‘펄펄 날았던’ 선수가



올 시즌 합류한 가드 심성영(33)과 포워드 한엄지(27)다.

지난 시즌 직후 우리은행에선 주전 4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에이스 김단비만 남았다. 우리은행은 심성영, 한엄지 등 다른 팀의 후보급 선수로 빈자리를 채웠고, 하위권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 밖 활약 덕분에 우리은행은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쥔 챔피언까지 진출했다. 챔피언전을 앞둔 심성영과 한엄지는 “이적 첫 시

즌부터 우승에 도전하게 될 줄 몰랐다. ‘엑스트라’에서 ‘명품 조연’이 된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성영은 사실 KB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KB에서 프로에 데뷔해 14시즌을 뛰었다. 챔피언전 우승도 두 차례 맛봤다. 하지만 지난 시즌 세대교체에서 후보로 밀렸다. 그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친정팀을 떠나 우리은행에 왔다”고 말했다. 피주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성 노동자 비춘 '아노라' 오스카를 허하노라

독립영화 제작의 한 우물을 파온 손 베이커(54) 감독이 영화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가 연출·각본을 맡은 영화 '아노라'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 감독·각본·편집·여우주연상 등 5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아카데미 작품·감독상을 수상했다. 텔버트 만, 봉준호에 이어 칸 황금종

려상과 오스카 작품·감독상을 동시에 받은 세 번째 감독이 됐다.

'아노라'는 뉴욕의 스트리퍼 아노라(마이키 매디슨)가 철부지 러시아 재벌 2세와 충동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러시아 재벌 부부가 보낸 하수인 3인방이 이들의 혼인 무효 소송을 강행한다는 블랙코미디다. 신데렐라가 될 뻔한 스트리퍼의 스토리에 성 노동자의 애환과 계급 갈등을 담았다.

베이커 감독은 '스타렛'(2012), '댄저러스'(2015),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 '레드 로켓'(2021) 등의 작품을 통해 성 노동자, 불법체류자, 홈리스 등 미국의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삶을 조명해왔다. 저

아카데미 작품·감독상 등 5관왕
칸과 동시 수상, 봉준호 이어 세번째 베이커 감독 "영화 관람 위대한 일" 남우주연상 '브루탈리스트' 브로디 블랙핑크 리사, K팝 최초 축하 무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며 주류 영화계와 다른 스토리텔링과 촬영 방식을 고집해 미국 영화계의 아웃사이드로 꼽힌다. 예산이 부족해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기도 한 그가 상업영화관에 진출하지 않는 건 "특정 예산 수준을 뛰어넘으면 편집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노라'의 제작비는 600만달러(87억원)로 할리우드 주요영화 제작비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베이커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 영화는 인디 아티스트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세상이 분열되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 중요한 경험"이라며 "극장 관람이라는 위대한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노라'의 주연 마이키 매디슨(25)은 데미 무어('서브스틴스')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 20대 배우가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실버레이닝 플레이북(2013)의 제니퍼 로렌스 이후 12년 만이다. 매디슨은 영화에선 신데렐라 등극에 실패했지만, 이날 시상식에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신데렐라가 됐다.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에서 살인마 찰스 맨슨의 추종자 역할로 주목받은 그는 "성 노동자 커뮤니티에 감사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52)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출신 유대인 건축가를 연기한 '브루탈리스트'로 두 번째 오스카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브로디는 이미 29세에 홀로코스트 비극에 휘말린 유대인 음악가를 연기한 '피아니스트'(2003)로 오스카 최연소 남우주연상 기록을 세웠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역할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두 번 수상한 셈이다.

영화에서 이민자의 희망과 고난, 분노와 좌절을 폭넓게 그려낸 그의 수상 소감은 의미심장했다. "전쟁과 체계적인 억압이 트라우마, 반유대주의, 인종 차별을 남겼다"며 "건강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증오를 방지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남녀 조연상은 키에란 컬킨과 조 셀다나가 각각 받았다. 컬킨은 '리얼 페인'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사촌 형제와 함께 폴란드 여행을 떠난 벤지를 연기했다. "나 홀로 집에" 시리즈 맥컬리 컬킨의 친동생이다.

'아바타' 시리즈의 네이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모라 등 비(非)인간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지만, 상과는 인연이 없던 셀다나는 뮤지컬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는 멕시코 마약카르텔 수장을 돕는 변호사 리타 역을 맡아 춤과 노래 실력을 뽐냈다. 스스로를 "오스카를 받은 최초의 도미니카 공화국 혈통의 미국인"이라고 소개하며 "리타 같은 여성의 강인함을 인정해준 아카데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플로우', 단편 애니메이션상은 '사이프러스 그늘 아래'에 돌아갔다.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과 '나는 개다'를 원작으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매직 캔디즈'는 단편 애니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정현목 문화선임기자



요즘 PGA에서 가장 핫한 마이클 김

최근 5개 대회서 '톱 10' 3회
2018년 첫 우승 이후로 부진
한때 25개 대회 연속 컷 탈락
서울서 출생, UC버클리 졸업



최근 PGA투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마이클 김 선수.

무려 8타 차로 우승하자마자 끝없이 추락했다. 두 시즌 동안 컷 통과가 딱 한 번이었다. 25개 대회 연속 컷 탈락도 했다. 마이클 김(31)은 PGA 투어의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2018년 존 디어 클래식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한 후 갑자기 길을 잃었다. 대학 동료였던 마이클 위버는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됐다"고 했다. 세계랭킹은 1000위를 훌쩍 넘었고 당연히 2부 투어로 밀렸다.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에서 벌어진 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셔널 3라운드에서 마이클 김은 5언더파 67타를 쳤다. 코스를 어렵

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아널드 파머 코스에서 이글을 두 개나 잡아냈다. 마이클 김이 PGA 투어에서 642라운드를 하는 동안 한 라운드에서 이글 두 개를 한 건 처음이다. 거리도(평균 305야드) 부족 늘었고, 자신감도 충분하다. 그는 577야드 파5인 12번 홀에서는 페어웨이 벙커에서 2운을 시도해 그린 사이드 벙커로 보냈다가 36야드 벙커샷을 홀인 시켰다. 마이클 김은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다이가 좋으니 홀인해라'고 해줬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클 김은 최종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8언더파 4위에 올랐다. 최근 5경기 내내 우승권을 맴돈 마이클 김은 페덱스 랭킹 8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 기

세라면 미국 골프 선수들의 꿈인 라이더컵에도 나갈 수 있다. 마이클 김은 아마추어 시절처럼 다시 엘리트 반열에 합류하게 된다.

마이클 김이 이번 대회만 잘한 게 아니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PGA 투어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다. 2023년 1부 투어로 복귀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최근 5경기에서 톱 10 3번에 가장 못한 게 공동 13위다.

피닉스 오픈(2위)과 코그니전트 클래식(6위),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셔널(공동 13위)에선 우승 경쟁을 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그는 UC 버클리 재학중이던 2013년 미국 아마추어 대표로 유럽과의 대륙 대항전인 위커컵에 출전했다. 저스틴 토머스과 맥스 호마 등과 함께 한 미국 대표팀에서 마이클 김이 에이스였다.

그 해 대학 최고 선수 상인 하스킨스 상, 1부 대학 최고 선수상인 잭 니콜라

우스상을 동시에 받은 선수였고, 위커컵에서 3승 무패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에 가서는 한 번 우승 후 어려움을 겪었다.

마이클 김은 "2018년 첫 우승을 한 후 여유가 생겨 스윙 교정을 하다가 꼬이기 시작했다. 희망이 사라질 무렵 손 폴리를 찾아가게 함께 스윙을 잡으려 노력했다. 오래 노력했으나 지난해 말 불위치를 바꾼 게 마지막 퍼즐을 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 때 타이거 우즈를 가려줬던 손 폴리는 슬럼프에 빠졌던 안병훈을 도운 선생님이기도 하다. 폴리는 "(한국 선수들을 많이 가르쳤으니) 한국에서 레슨 스킴을 열어야겠다"고 농담반 진담반 말했다. 한국어가 유창한 마이클 김은 "한 때는 어떻게 해도 컷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사한다"고 했다.

글·사진·성호준 골프전문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양일보

① 위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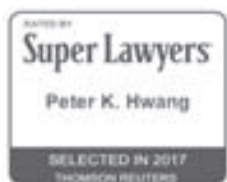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교통 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3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디자인만큼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찌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omeone or something) drives (one) up a wall:
 화나게 하다, 곤란하게 만들다

Roommates Annie and Sandra are washing Annie's car.
 (룸메이트인 애니와 샌드라가 애니의 차를 닦고 있다.)

Annie: Are you ready for the exams next week?
 애니: 다음주 시험 준비는 다 했어?
 Sandra: Yes but it's driving me up a wall.
 샌드라: 응. 그런데 시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Annie: What are you worried about?
 애니: 뭐가 걱정인데?
 Sandra: I don't have a handle on idioms.
 샌드라: 관용구 공부가 잘 안돼.
 Annie: We're in the same boat. Idioms are hard for

me too
 애니: 나하고 같구나. 나도 관용구가 어렵더라.
 Sandra: Really? 샌드라: 정말?
 Annie: Yes. But if we pull together maybe we can get a good grade.
 애니: 응. 하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Sandra: That's a good idea.
 샌드라: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Annie: After we finish washing the car let's study idioms.
 애니: 차 다 닦고 나서 관용구 공부하자.
 Sandra: Okay. 샌드라: 좋아.
기억할만한 표현
 ▶ have or get a handle on (something): (무엇을) 이해하다.
 "I have to get a handle on my Spanish class."

(스페인어 수업을 잘 따라가야 할 텐데.)
 ▶ to be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에 있다.
 Jim: "May I borrow your dictionary?" (사전 좀 빌릴 수 있어?)
 Roger: "We're in the same boat. I don't have a dictionary either."
 (나도 너랑 사정이 같아. 사전 없어.)
 ▶ pull together: 힘을 합하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스포츠나 놀이로서 물속을 헤엄치는 일. (3) 물의 힘으로 바위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뿔쫓 (5)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이다. 인□□□ (7)키가 큰 몸. ~의 농구 선수 (9)물건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곳 (10)이때부터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 그제가 ~였으니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겠조 (11)성문이나 궁문을 지키는 무관직 (13)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그릇 (15)아버지의 누이의 남편 (17)홍수 때에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 (21)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림 (23)입 안의 윗부분. ~을 데었을 때는 얼음으로 차갑게 해주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이 좋다고 하죠 (25)고기나 굵은 떡 조각 따위를 굽는 기구. 네모지거나 둥근 쇠 테두리에 철사나 구리 선 따위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만든다 (26)종교상 신앙의 최고 법전이 되는 책 (28)이름난 훌륭한 작품 (29)매우 크고 좋은 집 (30)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모)에 다시 고침, 법령을 자주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 □령□□ (31)말린 조기.

세로열쇠

(1)목숨이 길어 오래 삶. 어린아이의 명이 길어 오래 살기를 빌 때 쓴다 (2)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 포크를 속되게 이르는 말 (3)세상의 이리저리한 실정이나 형편 (4)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 하는 사람. ↔프로 (6)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8)조선 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12)아내의 어머니 (14)남을 빈정거리 놀림. 심판의 결정에 항의하는 ~가 쏟아졌다 (16)분하고 노여운 마음. ~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18)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 (19)하늘의 뜻을 알. 신 살을 달리 이르는 말 (20)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음.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 일□□□ (22)신라 선덕 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경주시에 있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이다. 국보 제31호 (24)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뿔나무의 날개 (27)갑갑함을 알리기 위해 차의 위쪽에 다는 붉은빛을 발하는 등 (29)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재 또는 영(嶺).

스도쿠

	2		5			7				
4	8									6
	6	9			1				2	7
	9	1				7	4			3
7			8			9				2
	2			1	3			7		8
				3		8		4		
1						6			7	
	5							3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9	3	1	4	7	2	5	8
5	7	8	2	9	6	3	4	1
1	4	2	8	5	3	9	7	6
8	6	7	9	3	1	4	2	5
2	1	9	5	6	4	8	3	7
3	5	4	7	8	2	1	6	9
7	2	5	4	1	8	6	9	3
9	3	1	6	2	5	7	8	4
4	8	6	3	7	9	5	1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일본식당 구인 **한국화장품샵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실 경험 많은 분**
 *스시 셰프 0명 **영어가능자, 아파트 제공**
 유경험자 **(907)250-8864**
 침식제공 **이민생활의 나침반**
 (걸어서 출퇴근 거리) **중앙일보 안내광고**
 알라바마 지역 **(213)368-2525**
 T.251-968-2525 **256-653-1970**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릭**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 헷드전문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기손가락 크기 양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213)675-6877 | OC(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매·도매 민물장어 판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당신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EB-3 비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닭공장, 생선공장 등]
자격 조건 유학생 포함, 합법 신분 소지자, 학력, 경력 및 영어 성적 무관, 건강하며 범죄 기록 없는 자. 누구나 지원 가능.
웹사이트: www.worldwidecompass.com
전화문의: 213-788-8376 (엘에이), 470-223-3979 (애틀랜타)
이메일 문의: kseri@worldwidecompass.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